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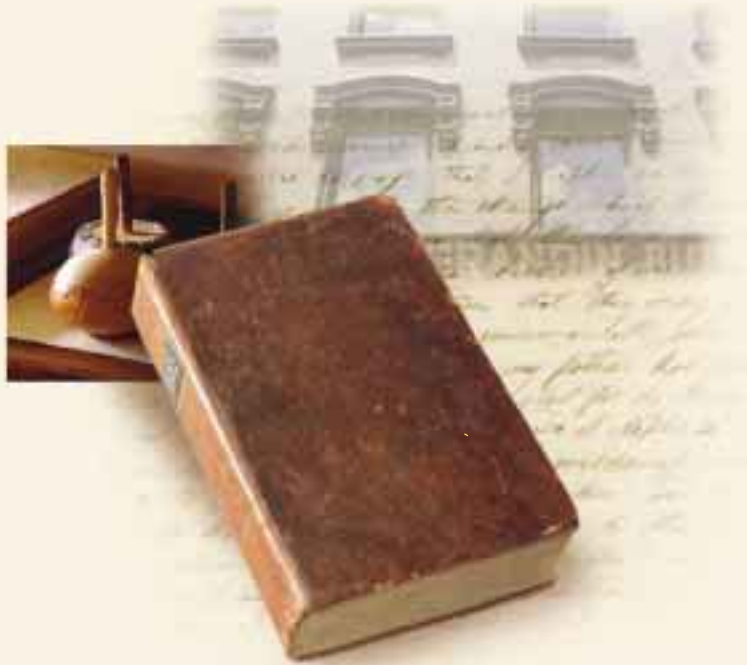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물문경 읽기,
2, 7쪽.

외설물이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18, 22쪽.

성신의 은사, 천4쪽





하 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 번역된
물문경의 초판은 정확히 176년 전
이 절기에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조판되어 조그만 인쇄기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그 출판은 1830년 4월 6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직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며, 그 조직을 예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2쪽.



리아호나



표지
앞: 그림: 제프리 하인. 뒤: 사진 촬영: 엘튼 시 앤더슨, 크레이크 다이먼드, 돈 오 도프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4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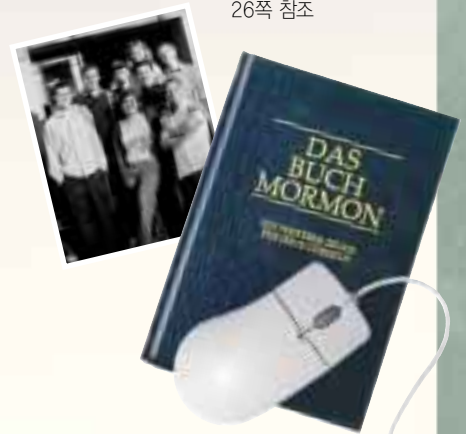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7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 8 가족 강화: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 10 교리와 성약에 담긴 메시지: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카를로스 에이 페레스 장로
- 12 이렇게 기록을 찾았습니다!
- 18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마리오 하이플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뻐함
- 30 칠십인 정원회 열 시 텅기 장로
- 3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2-65~137편
- 40 후기 성도의 소리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요 플로레스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패멀라 엠 무디
- 48 애독자 편지

"머물러야 할 곳", 2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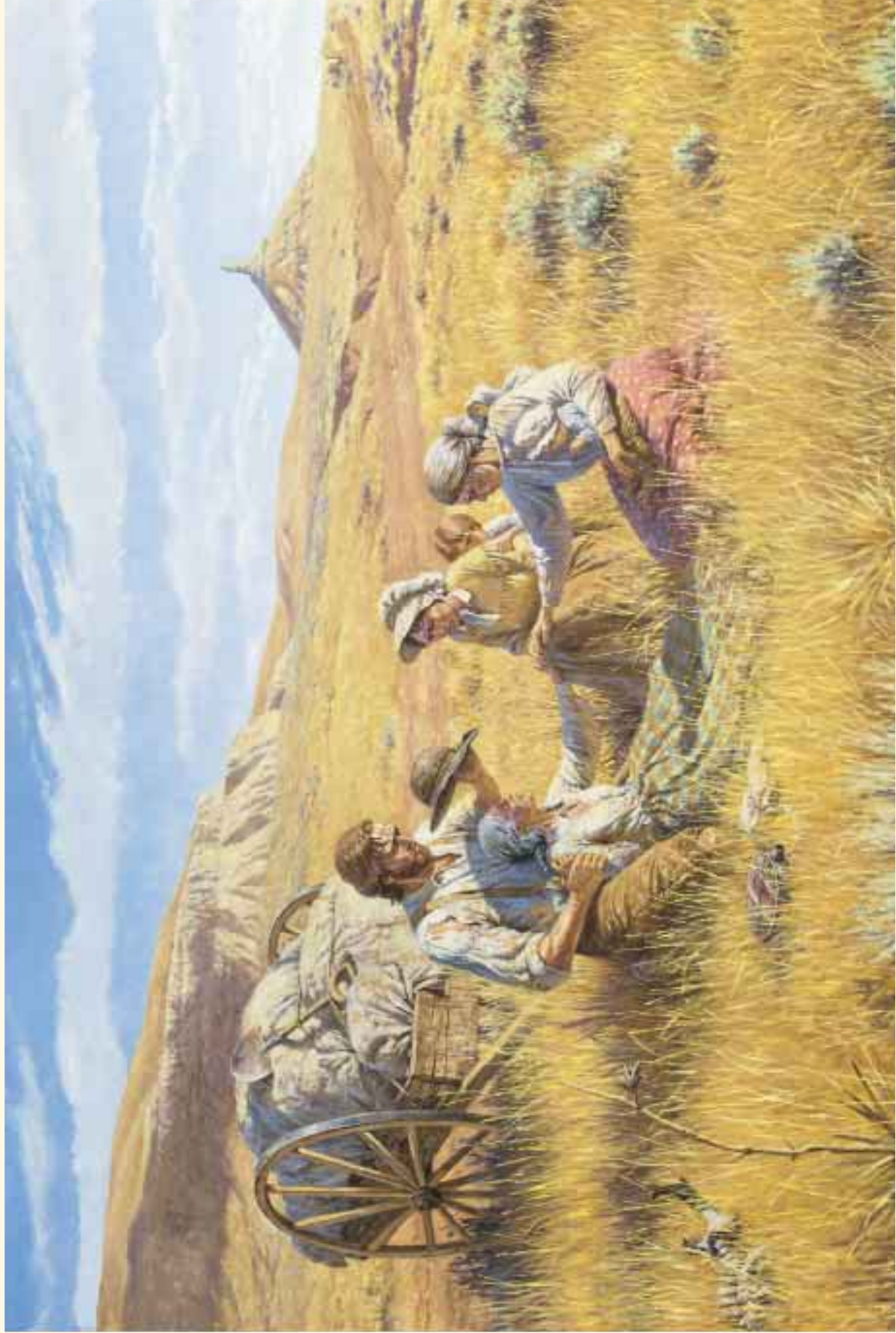
청소년

- 16 599번의 침례 윌슨 아르레이 오캄포
- 22 질의 응답: 외설물이 제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6 머물러야 할 곳 재닛 토마스
- 33 포스터: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 39 알고 계십니까?
- 44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아담 시 울슨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성신의 은사 마가렛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댄디로부터 얻은 교훈
- 친8 사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 친10 침례와 확인을 위한 권능
- 친11 특별한 증인: 인물 탐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친1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오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루어라이 노우
- 친14 친구 사귀기: 한스 니에토 에라도르, 과야킬 마빈 케이 가드너



내가 시온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존에게 말해 주세요, 클라크 켈리 프라이어스

제임스 스틸이 “위 그래니”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메리 머독 자매의 얼굴에 비친 햇빛을 가려주고 있다. 머독 자매는 기력이 떨어져 네브래스카 주 침니 룩카지팍에 가지 못했으나, 이들 존에게 자신이 시온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전해 달라고 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잘 나타냈다. 그녀의 간증은 후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레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텔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아담 시 홀슨, 슈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펠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프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허워드, 데니스 커퍼,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473호, 제42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권리 보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5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리아호나를 사용하는 데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자갈을 먼저 넣은 다음에 곡식을 쏟아 부어 병을 다시 채워서 곡식과 자갈 모두를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8쪽: 결혼 사진을 보여 주고 “결혼 생활의 유대”의 의미를 묻는다. “사랑의 유대” 편을 읽는다. 이 기사에는 이런 유대에서 오는 어떤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가?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찬송가, 174장)을 읽거나 노래하고, 기사에 있는 마지막 인용문을 나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정에서의 사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18쪽: 모사이아서 4장 30절을 읽고, 부적절한 것을 보는 것의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 목록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그 목록을 컴퓨터 옆에 붙여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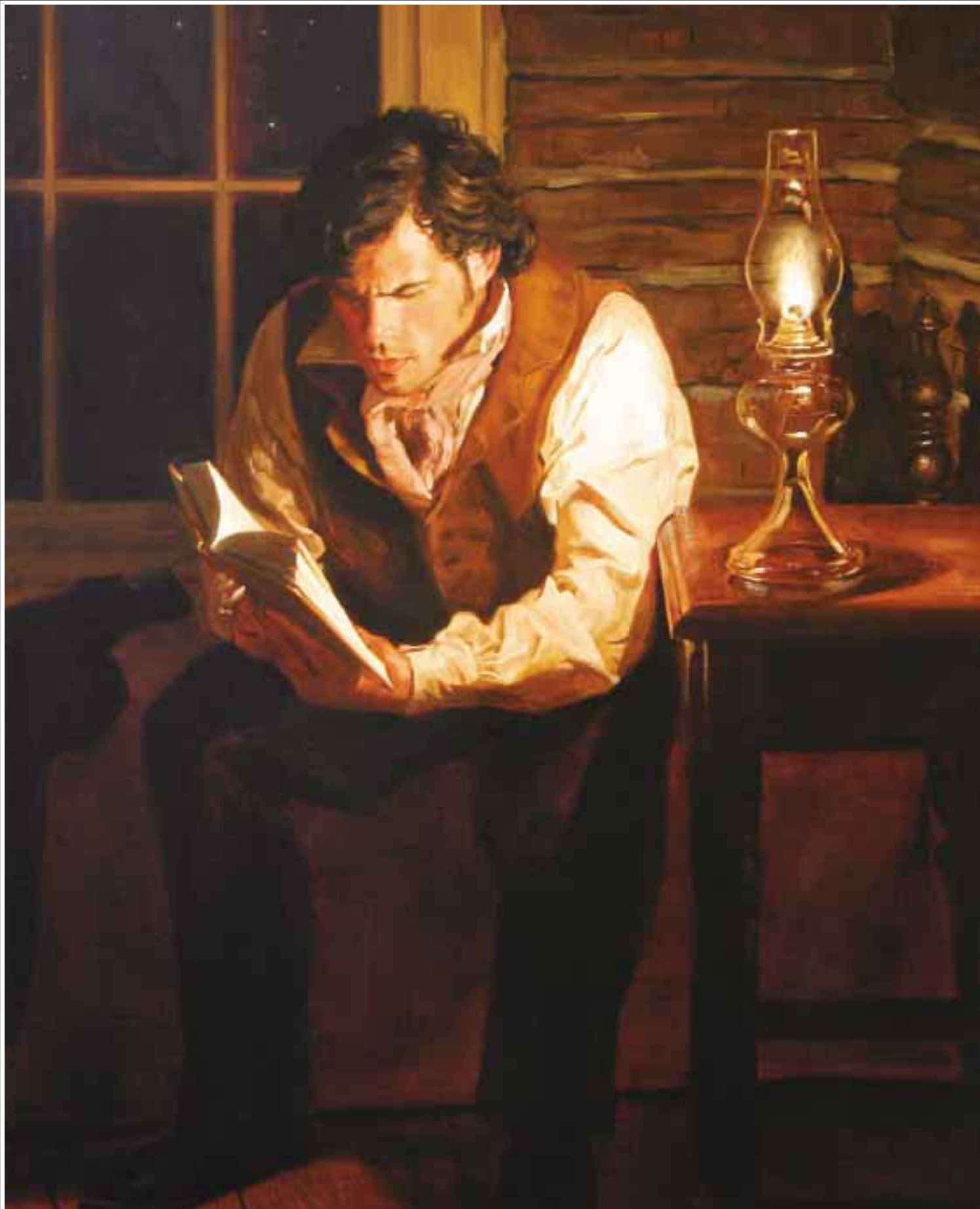
“머물러야 할 곳”, 26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종교 교육원 활동 센터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가족이 지역의 종교 교육원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한다. 종교 교육원에 등록하지 않은 독신 성인 한 명에게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유한다.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44쪽: 병 하나를 (쌀과 같은) 곡식으로 채우고, 작은 자갈 여러 개를 병 안에 넣는다.(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갈) 다 비운 후

· 넣는다. 기사를 읽고 자갈과 곡식이 무엇을
·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영원한
· 것에 시간을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무엇인가?
·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친2쪽: 맥키
· 자매와 카나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읽거나
· 여러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다.
· 가족들에게 빌리의 그림을 그리고 그에
· 관해 배운 것을 적도록 권유한다. 그런 다음
· 이 이야기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음 주에
·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어 달라고
· 부탁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사랑, 8, 40, 친2, 친8
가르침, 1	선교 사업, 16, 26, 친14
가정 복음 교육, 6	성신, 친4, 친10
가정의 밤, 1	성약, 8, 친4
가족 역사, 10, 12, 16	성전, 10, 12, 16
가족, 8, 12, 44	순종, 친6
간증, 2, 40	스미스, 조셀, 25, 34
개종, 2, 10, 16, 40	신권, 30, 친10
결혼, 8, 40	예수 그리스도, 친8
경전 공부, 2, 7, 친14	외설물, 18, 22
교리와 성약, 10, 34, 39	우선 순위, 44
교회 역사, 34, 39	우정 증진, 26, 친12
구원의 계획, 25	인터넷, 18
기쁨, 25, 40	종교 교육원, 26
독신 성인, 26	지도력, 30, 39
몰몬경, 2, 7, 33	초등학교, 친4
방문 교육, 25	칠십인, 30
발라드, 엠 라셀, 친11	확인, 친4, 친10
보호, 18, 40	회개, 22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늘에서 온 천사”를 모임에서 종종 부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한 세기 반보다 더 오래 전에 팔리 피 프랫이 썼습니다.¹ 가사에는 눈에 띄는 한 책이 기적과 같이 출현하게 된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176년 전 가을에 그 책이 처음으로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조판되어 인쇄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언급된 책을 팔리 프랫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1830년 8월에 그는 평신도 설교자로서 오하이오 주에서 동부 뉴욕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운하를 따라가다 뉴어크에서 하선하여 육로로 16킬로미터를 걸어 들어간 곳에서 햄린이라는 침례교 집사를 만났습니다. 햄린은 그에게 “어떤 책, 이상한 어떤 책, 정말 이상한 어떤 책에 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어느 한 지파에 의해 금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판에 원래 기록되어 있었는데 뉴욕 주의 팔마이라 부근에 사는 한 젊은이가 시현과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발견하여 번역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어디서 그 책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다음날 아침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내 눈으로 책 중의 책, ‘몰몬경’을 보았습니다. ... 그 책은 미래의 내 인생 전체 행로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나는 열의를 갖고 책을 펼쳐 표제지를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책이 발견되고 번역된 방법과 관련된 여러 증인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순서대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 종일 읽었습니다. 먹는 것도 짐이 되어 나는 음식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자는 것보다 읽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밤이 찾아와 자는 것도 짐이었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깨닫고 알듯이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²

그 당시 팔리 프랫은 스물세 살이었습니다. 몰몬경을 읽은 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곧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와 몰몬경을 옹호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성역을 행하는 동안 그는 현재의 미국의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까지, 캐나다로, 그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에서도 일했으며, 남미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몰몬경에 관한 팔리 프랫의 경험이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용기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깊은 감명을 받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증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후기 성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57년에 아칸소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등 뒤에서 총격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앨마 지역에 가까운 시골에 매장되었으며, 오늘날 그 한적한 곳에는 화장암으로 만든 빛나는 대형 비석만이 그 자리가 그의 무덤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그가 쓴 훌륭하고 예언적인 또 다른 찬송가의 노래말이 새겨져 있어 그가 참여했던 사업에 대한 그의 비전을 말해 줍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거룩한 진리 빛 앞에
 과오의 구름 사라지네
 영광 멀리서 타오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이제 곧 빛 발하리라³

몰몬경에 관한 팔리 프렛의 경험이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판본이 유포되어 읽혀짐에 따라, 용기 있는 수백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깊은 감명을 받아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그 이후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책의 참됨을 진실로 간증한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처음 출판된 이후로 175년이 지난 오늘날, 몰몬경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초판에서는 5,000부가 발행되었지만, 현재는 매년 5,000,000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이 책 또는 이 책의 선집은 10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진리처럼 끝이 없고, 인류처럼 우주적입니다. 몰몬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성스러운 권능으로써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초판에서는 5,000부가 발행되었지만, 현재는 매년 5,000,000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이 책 또는 이 책의 선집은 10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원은 기적적입니다.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의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몬경은 지금 여기에 있고 느끼고 손으로 만져 보고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논박할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준 기사 이외에 그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고대 미대륙의 기록입니다. 성경이 구세계의 경전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몰몬경은 신세계의 경전입니다. 이 두 경전은 각각 서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경전은 영감의 영, 즉 확신시키고 개심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경전은 한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의 이야기는 오래 전에 사라진 나라들의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조간 신문처럼 현실적이고 또한 그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관해 훨씬 분명하고, 영감적이며, 고무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길을 따르는 사회의 비극적인 결과를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 주는 기록을 달리 알지 못합니다. 몰몬경의 각 페이지에는 서반구에서 꽃피었던 두 문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각 문명은 작은 국가에서 출발했으며, 그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더불어 악도 자라났습니다. 백성들은,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세금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공허한 약속으로 그들을 달래고, 방탕하고 음탕한 생활을 묵인하고 심지어 격려하기까지 했던, 야심과 음모에 가득 찬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굴복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음모자들은 사람들을 끔찍한 전쟁으로 끌어들이었고 이로써 수백만 명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다른 두 시대에 걸쳐 각기 위대한 두



그림: 존 스크트, 이대륙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

문명을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기록된 다른 어떤 경전도, 사람과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에는 번성하고 성장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는 의로움으로 그것을 저지하지 않는 한 무기력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쇠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것처럼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몰몬경은 다음과 같은 구약전서의 잠언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욱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대륙의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12)

몰몬경이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언급하고 있으나 그 메시지의 훌륭하고 감동적인 요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시며 팔레스타인의 먼지 길을 걸으셨던 분,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 제 삼일째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이 서반구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분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수세기 동안 성경은 나사렛 예수의 신성에 대한 기록 증언으로 유일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그 곁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몰몬경 표제지) 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두 번째 증거,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몰몬경 표제지) 번역된 몰몬경의 초판은 정확히 176년 전 이 절기에 뉴욕 주 팔마이아에서 조판되어 조그만 인쇄기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그 출판은 1830년 4월 6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직보다 앞서 있었고, 그 조직을 예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일학교에서 몰몬경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세계의 교회

몰 문명이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언급하고 있으나 그 메시지의 훌륭하고 감동적인 요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입니다.



회원들과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문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반 이상을 읽는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책을 다 읽게 될 것입니다. 물문경에 있는 239번째 장의 거의 끝부분에서 여러분은 선지자 모로나이가 거의 16세기 이전에 자신의 기록을 끝내면서 던진 숙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름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기록한 나의 말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외치는 자같이 참으로 티끌에서 말하는 자같이 너희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실 것임이니라. ...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참됨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27, 29)

주저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물문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

주

1. 찬송가, 28장 참조.
2.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년), 36~37쪽.
3.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올해 말까지 물문경을 다 읽어 보라는 **힝클리 회장의 권고에 관해, 가정 방문을 하기 전에 가정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이 가정 방문 교육을 하기 전에 이 권고를 가족과 함께 토론해 볼 것을 가정들에게 권고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1. 물문경을 읽거나 다시 읽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힝클리 회장이 한 약속에 대해 토론한다.
2. 가족들에게 물문경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나 성구를

나누도록 권유한다. 가족들이 물문경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물문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3. 표시를 해 놓은 여러분의 물문경을 가족들에게 보여 준다. 물문경이 중요한 이유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것을 권유한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그들에게 말한다. 물문경의 참됨에 관해 간증을 얻은 팔리 피 프렛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 물문경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교회에서 제작한 비디오 ‘참으로 귀중한 재산 물문경’ (물품 번호 53144 320)의 일부를 보여 줄 수 있다.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후일의 선지자들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권능과 영향에 관해 한결같이 간증해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들어 왔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 “몰몬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이 다시 열렸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모든 필요한 지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여 주는 주님의 참된 길이 지상의 인간에게 다시 계시되었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Marks Pointing to Authenticity of Book of Mormon”, *Instructor*, 1952년 10월호, 318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1876~1972년): “이 교회의 어떤 회원도 몰몬경을 진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합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61년 10월, 18쪽)

해롤드 비 리 회장(1899~1973년): “형제들에게 몰몬경의 가치를 권능으로써 가르쳐 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의 가치에 대해 말한 것보다 더욱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461) ...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게 되기를 원한다면,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62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년):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구속주를 사랑하는 모든 참된 성도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다른 증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영감어린 책은 승인 받지 않은 번역자나 편향된 신학자에 의해 결코 변경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역사가들과 요약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ward L. Kimball 편 [1982], 133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 “몰몬경을 4년마다 주일학교와 세미나리 수업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년의 학습 주기는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는 이 책의 내용을 매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461) (“은 지상이 몰몬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벗, 1981년 1월호, 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년):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기록을 읽을 것을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이 책은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두드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모로나이가 약속한 대로(모로나이서 10:4 참조) 하나님께서 이 책의 참됨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년], 54쪽) ■





가족 강화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¹

성스러운 결혼 성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는 가정의 신성함에 관해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후기 성도들이 결혼 성약의 성스러움 보다 더 크게 강조하는 원리는 없습니다.”²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올바른 장소에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의 자녀가 의로움 속에서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사랑의 유대

유대라는 낱말은 “성약”, “결속력”, “결합하고 묶고 강화시키는 접착제”를 포함하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결혼 생활의 유대는 두 사람을 강화시키고 좀더 높은 목적을 주는 성약 관계로 그들을 결속시키는 사랑의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 관계는 남자와 여자를 자유롭게 하여 그들을 영원한 잠재력에 완전히 이르게 한다.

그러한 성약 관계는 자녀들이 환영 받고, 학대나 버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과 안전의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건 강하고 애정에 찬
결혼 생활은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기초이다.

부모에게 양육됨

교회 지도자들은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가족 안에서 양육될 때 더욱 행복해진다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들이 결혼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연령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낮아 보일 때는 그 아기가 성전에 갈 만한 합당성을 지닌 부모에게 인봉되도록 후기 성도 가족 봉사부를 통해 그 자녀를 입양시킬 것을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 권고해야 한다.”³ 후기 성도 가족 봉사부가 없는 곳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입양을 권고해야 한다.

가족 관계 학자들의 연구는 교회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의 출판물은 편부모 또는 동거 부모의 자녀를 결혼한 부모의 자녀와 비교해 보았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편부모가 적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종종 성공하는 반면에, 결혼한 부모와 함께 생활한 자녀들은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더 적고 가난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적으며 더 높은 성적을 얻는 경향이 있고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결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더 좋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갖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비율이 더 낮고, 자녀 학대를 덜 겪고, 자살을 하거나 범죄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도 더 낮다.⁴ 건강하고 애정에 찬 결혼 생활은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남녀간의 결혼

두 남자 또는 두 여자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라고 정부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교회는 2004년 7월에 결혼을 남녀간의 적법한 결합으로 정의하는 것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정의는 시민의 권리라는 문제 이상의 것이었다. 결혼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제도에 대한 강한 결심에 관한

일이다. 이 결심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정부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이런 도덕적 풍토를 변경한다면, 성별 상의 혼란이 커지고, 특히 자녀들 사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며, 나아가 선과 악 사이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할 것이다.(이사야 5:20 참조)

가정에서의 사랑

결혼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이지만, 결혼이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년)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라는 바람직한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행복한 추억을 그들의 창고 안에 더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⁵ 가족의 유익을 위해 현명한 시간 계획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쁜 생활때문에 자주 방해를 받습니다.”⁶

남편과 아내가 내릴 수 있는 다른 신중한 결정에는 충실하게 되는 것, 그리고 비판하려는 경향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것, 서로에게 봉사를 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 가는 것이 포함되며, 이렇게 하여 “가정에서의 사랑”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각 가족이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5쪽.
3. 제일회장단 서한, 2002년 6월 26일.
4.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Why Marriage Matters: Twenty-One Conclusions from the Social Sciences*(2002년).
5.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참조.
6. *Notwithstanding My Weakness*(1981년), 108쪽.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카를로스 에이 페레스 장로

지역 칠십인
남미 남부 지역

우리 조상들이 없이는 우리가
승영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그분들도 우리 없이는 승영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 전, 제가 침례 받은 직후에 한 자매가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면서 가졌던 느낌에 대해 성찬식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린이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자매가 말한 것이 참되고, 또한 제가 가족 역사를 작성하여 저의 조상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영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영감에 찬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교리와 성약 128:15). 우리 조상들이 없이는 우리가 승영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그분들도 우리 없이는 승영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영은 제가 에스터 이모를 방문해야

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교회 회원들이 행하는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모아놓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서류가 담긴 상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모는 상자를 열어 그 곳에 담겨 있는 것들을 제게 보여 주기 시작했는데, 외조부모님, 이모, 외삼촌,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가족들의 이름, 출생 일자, 사망 일자가 적힌 문서들을 보고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일 년 후에 아내와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외조부모님을 위해 대리 침례 의식을 집행했고, 성전에서 그분들이 의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놀라운 사업에 대해 저는 매우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족들은 영원히 하나가 되고, 영원한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간의 결합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우루과이에 성전이 있어 우리는



정규적으로
성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7년
전에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도록 속삭여
주고, 그 다음에는 커다란 행복을 만들어 주는 영적인
경험을 한결같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경험들은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권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 전
14세 된 어린 소년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지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사업은 신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인 속삭임에 따라 행할 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이렇게 가족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관한 정보를 묘지에서 찾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든, 또는 색 바랜 오랜 서류에서 찾든,
주님은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19 84년에 그레이스 디월리 모디바와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레이스는 가족 역사 사업에 마음이 이끌렸다.

“숙모, 삼촌, 다른 친척들에게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았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스테이크 애터리지빌 워드 회원인 그레이스는 말한다. “하지만 고조부모님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는 너무 자주 좌절했습니다. 2001년의 어느 월요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촌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준비를 했고, 장례식은 부모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애터리지빌에서 북쪽으로 약 20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보츠와나의 국경 근처였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전날인 금요일에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밤늦게 숙모님 댁에 도착하니 그 집에 식구들과 친구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마치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사촌 중의 하나가 오래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자기 집에 가서 머물러도 좋다면 우리들을 친절하게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깜깜한 밤이었지만, 길은 조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도착하자, 모두가 금세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손님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사촌은 이미 일어나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씻을 물을 주었으며, 다 씻고 났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몇 미터를 걸어가자 마당에 두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그 무덤으로 다가갔고, 그 무덤들이 저의 고조부모님들의 것임을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안 제가 그토록 절실히 찾았던 이름들과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흥분한 채로 사촌에게 제가 발견한 것과 이 조상들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왔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저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찾으려 저를 인도해 주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신들의 가족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1873~1939)는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이 아는 죽은 사람들의 영과 영향력은 그들의 기록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된 것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여러분은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¹

다음은 필요한 이름, 날짜, 또는 장소가 적힌 기록들을 찾으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던

사례들이다.

인터넷에 올라탄 카우보이

캘리포니아 샌터메리아 가족 역사 센터의 책임자인 리앤 코쉬맨은 이렇게 적었다. “대부분의 가족 역사가들처럼 저도 극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와 잃었던 가족을 찾았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특별히 생각납니다.

마 당에 있는 두 개의 무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안 제가 절실히 찾던 이름들과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을 전시회에서 전시 탁자에 있는 가족 역사 전시물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옷차림이 말끔하지 않은 카우보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 줄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전시회에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커다란 현수막에 ‘가족 역사 센터, 가족은 영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목적을 적었습니다. 옷차림이 말끔하지 않은 한 카우보이가 전시 탁자에 있는 전시물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상을 찾는 일을 도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줍음과 언어 장애로 대화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에 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의 온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침대 때 환경이 좋지 않았던 집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로데오 경기에 참가해 왔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 을 찾았고, 결혼을 하여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찾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저는 그의 부친의 사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미국 사회 보장 사망자 색인부를 찾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이 정말로 특이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찾기가 쉬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친의 이름을 찾지 못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친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간 인터넷을 검색한 후에 저는 그 카우보이의 부친의 현주소와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야’ 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는 부친께 전화를 해보라고 열심히 권유했지만, 그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나와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아버지는 안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친에 관한 정보를 인쇄해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전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편지를 쓸 수 있다고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당시의 여건에 관계없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손자녀들에 관해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열심히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저는 그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뒤에 그 카우보이가 같은 장소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며 ‘전화드렸지요!’ 라고 단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오늘 새벽 6시에 제 집 문 앞에 오셨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려 노력했지만 말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더니 한사코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껴안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몸을 움직여 그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부모를 찾는 데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6)라는 친숙한 성구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를 찾음

아르헨티나 리플라타 빌라엘비라 스테이크 빌라엘비라 와드의 안헬 다니엘 가티카는 영의 인도를 받아 필요한 기록을 찾았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르헨티나 중부 지방에 사는 우리 가족을 방문하는 동안, 아내와 나는 어머니의 이모 한 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형제 자매들 여러 명이 지난 5년 동안 그분 댁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역사 탐구를 위해 주님께서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시간이 정지해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큰 가방이나 옷가방이 그분의 형제 자매들이 놓고 간 장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나는 이모할머니에게 그 가방들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그분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분은 한 개만 열어 보아도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며 영감을 구하고 나서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열어 노랗게 변한 종이를 차례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증조부의 형제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 조그만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계속 가방을 뒤적이던 나는 이모할머니의 다른 친족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는 다른 서류들도 발견했습니다. 가방의 다른 내용물들은 오래된 잡지와 오래 낸 신문 기사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방 안에다 다시 넣고 가방을 닫자, 영은 다시 살펴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뒤집자 종이들이 떨어져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잡지와 오래 낸 신문 기사 더미 위에 낡았지만 잘 보존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 읽어 보았더니 과달루페 세폴베다의 출생 증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외증조부 되시는 분으로, 내가 태어나기 한 세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모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증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던 그분은 그것을 받고서는 살며시 그것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손에 들고 계셨지” 라고 이모할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것을 가슴에 갖다 대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주시며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그것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찾던 기록은 바로 내 증조부모 중의 한 분의 출생 일자였다. 이 대가족이 불완전한 채로 계속 남게 될 것인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도움을 주신 이모할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달려가서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어 일어난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 왔던 문서들을 담고 있는 작고 오래된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멈춰서 쳐다봤습니다. ‘이 종이들은 뭐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나는 한 날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나는 먼지를 불어 내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잊혀져 있던 이 낡은 원고에는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내게 필요한 출생 일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이 내 마음속으로 분명히 뚫고 들어와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야,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 라고 연로하신 이모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긴요, 할머니.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고맙지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별 인사로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생에서

이모할머니와 했던 마지막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과 주님의 영감으로 인해 어머니쪽으로 증조부 가족 모두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습니니다.”

이렇듯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 가족들의 이름과 날짜와 장소를 부지런히 찾는 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성한 도움의 손길에 대해 간증에 간증을 이어 전하고 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도록 방편과 수단을 제공하신다. 그 결과로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

주

1. Bryant S. 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1949년), 230쪽.



내 가 급히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공기의 힘으로 인해 오래된 바구니가 떨어졌다. 먼지 속에서 나는 종이에 적힌 한 날짜를 볼 수 있었다.

599번의 침례

월손 아르레이 오캠포

나는 여덟 살 때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후에 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는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인해 나는 가족 역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고 조상들을 찾겠다는 신앙을 행사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도 커져 갔다. 조상을 찾겠다는 소망이 너무도 강해서 나는 조상들이 살았던 고장을 여러 차례 여행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고, 내 마음은 조상들에게로 향했다.(말라기 4:5~6 참조)

얼마 후에 나는 와드에서 가족 역사 상담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내 마음은 확 트이기 시작했고, 와드에 있는 각 사람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교회의 회원 기록부, 기록 보관소,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나는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의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일단 내 가족 역사 정보를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하고 냈을 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전으로 가서 장막 너머에 있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영원을 위해 내 가족의 세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나는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다. 2000년 10월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조상들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고무되어
나는 수백 명의
조상들을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행했다.

시작했다. 몇 달 뒤에 동반자와 나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던 와드의 청소년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다. 나의 가족 역사 정보가 들어 있는 디스크를 가져가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599명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었다.

내가 증인으로 봉사하는 동안 동반자는 내 조상들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정말 큰 기쁨을 느꼈다. 영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참됨에 관해 증거해 주었다. 나는 조상들의 행복과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집행해야 할 다른 의식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름들을 성전에 맡겼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나는 증조부모와 그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그 달 하순에 동반자와 나는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했다.

나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연히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나는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조상들을 찾아보라고 격려하고 있다. 나는 이 사업을 사랑하며, 이 일이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월손 아르레이 오캠포는 콜롬비아 메데인 벨렌 스테이크 엔비기도 와드의 회원이다.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여러분이 가족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오 하이플

우 리 교회 지도자들은 인터넷 상의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그외 의심스런 자료들을
피하도록 정규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부모로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음과 같은 제언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고, 자녀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이 가까이 있도록 하며, 자녀들이 의심스런
자료를 볼 때에는 즉시 컴퓨터 사용을 끝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기술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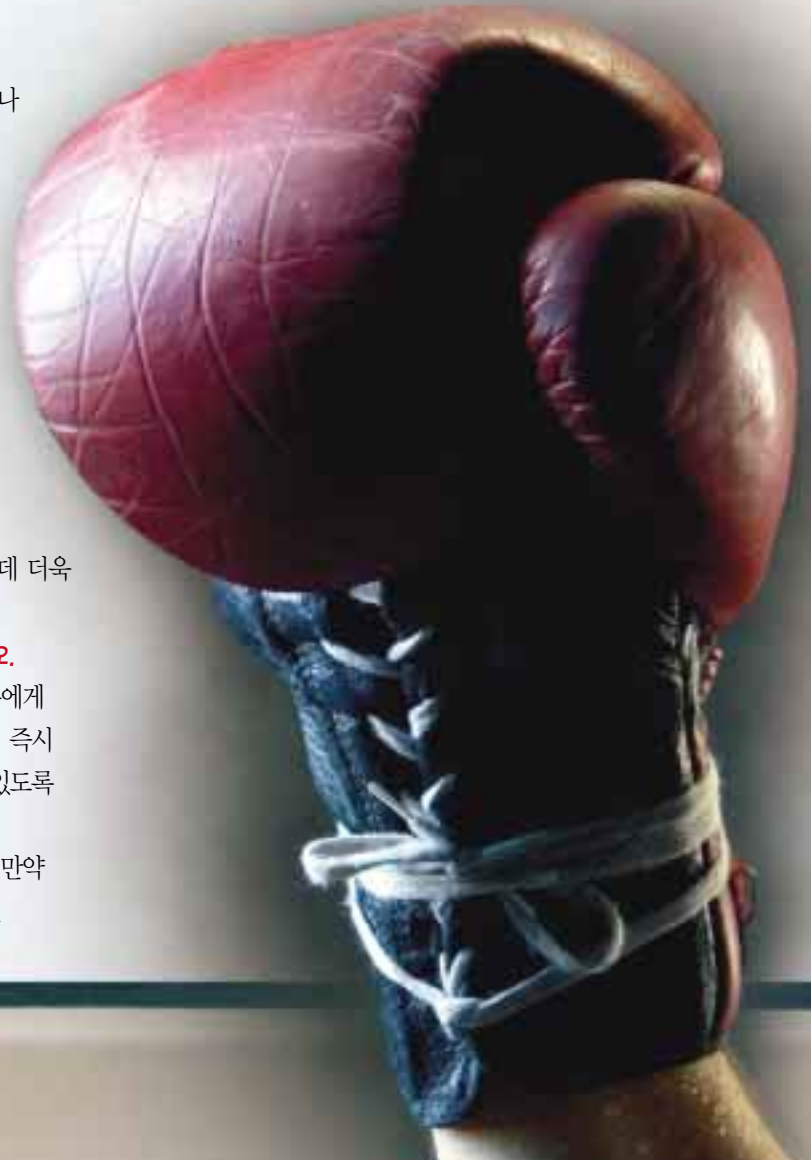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떤 사이트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웹 사이트를 발견할 때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가르치고, 부적절한 사이트나 영상이 나타날 때 즉시
컴퓨터를 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덧붙여서 최근의 인터넷 방문 기록을
체크함으로써 자녀들이 방문한 웹 사이트를 감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을 모른다면
브라우저에서 온라인 도움을 체크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탐지하고 싶은 날짜나 방문 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록을 제거하는
스케줄을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에 없는 시간에 비어
있는 목록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필터링(차단 장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인터넷 필터는
컴퓨터로 원문이 보내지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터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트를 만날 경우에
컴퓨터 사용자는 그 사이트가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웹 사이트로
보내질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한 필터는 없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필터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터들을 검토하고 추천하는 평판 좋은 웹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필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들은 올바르게 사용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유익합니다. 필터가 제 구실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도 검토해야만 합니다. 필터가 부적절한 텍스트를 찾되 이미지를 찾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필터는 사진을 조사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필터와 인터넷 사용에 관한 자녀들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의 정책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즐겨 찾거나 북마크를 사용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책갈피를 허락하거나 즐겨 찾기 웹 사이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주소를 기억하거나 매번 찾지 않아도 빠르고 쉽게 웹 사이트를 찾게 해줍니다. 가족 즐겨 찾기 목록을 만드는 것은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볼거리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설물 웹 사이트의 일부 운영자들은 인기 사이트나 그들의 웹 페이지 주소(URL) 검색에서 흔히 있는 잘못 입력된 철자를 이용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탐색을 하거나 검색, 또는 URL 주소를 타자해 넣기보다는 즐겨 찾거나 북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을 만한 검색 엔진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수많은 작은 검색 엔진들은 수입 창출에 이용됩니다. 무단 침입자나 외설물을 파는 자들은 실제로 자기네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특정 구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에서 그 특정 구절을 쳤을 때 그들의 웹 사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던 한 어린이가 본의 아니게 외설물 웹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려진 큰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검색 엔진 상의 어떤 검색은 의심스런 자료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검색 엔진을 즉시 사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가르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과사전 사이트들은 검색되고 있는 주제에 관련된 다른 연결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팝업 차단기를 사용하십시오. 팝업 창은 컴퓨터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 페이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팝업 창은 외설물을 가지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웹 사이트로 사용자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일부 검색 엔진들은 다운로드를 위한 팝업 차단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라우저들은 이미 프로그램의 일부로 팝업 차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터넷의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외관상 무해하게 보이는 많은 프로그램들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또는 동의 없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애드웨어” 또는 “스파이웨어”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분의 컴퓨터 화면의 아래쪽 오른쪽 구석에서 그들의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웨어는 바이러스를 거쳐 여러분의 컴퓨터에 숨겨질 수 있습니다.

가 정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고,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이 가까이 있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의

표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시켜서
그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애드웨어와 스파이웨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추적한 다음 여러분이 방문한 웹 사이트에 기지를 둔 여러분의 컴퓨터로 광고 표제나 팝업 창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스파이웨어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상관없이 그들의 웹 페이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보내도록 돈을 지불하는 스폰서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런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컴퓨터 상에서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팝업 차단기나 그 밖에 여러분이 설치한 어떤 보호 장치로도 잡힐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웨어는 키스트로크(컴퓨터의 글쇠 누름)를 잡아 중앙 서버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스파이웨어 운영자들은 여러분이 컴퓨터 상에서 두드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스캐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두드리는 신용 카드 숫자, 암호, 이메일 주소 및 그 밖의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는 이들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를 제거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료 피투피(P2P) 또는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공유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2P 파일은 사용자가 음악이나 다른 매체를 돈을 내지 않거나 조금 내고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P2P 파일 공유는 불법이며, 특히 컴퓨터 사용자가 모르는 사람들과 파일을 거래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필터들은 P2P 파일 공유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바이러스와 저속한 자료들은 P2P 파일 공유를 통해 퍼집니다. 현혹시키려는 자들은 자기네의 자료로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외설물과 바이러스를 대중 음악, 음악가 및 영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일단 그러한 자료가 컴퓨터 상에서 다운로드 되고 열리면 컴퓨터 사용자는 콘텐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콘텐츠(내용)를 숨기기 위해 대체된 파일들을 여과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팸 메일을 열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원하지 않은 벌크 메일이나 스팸은 인터넷 상의 외설물의 주요 근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설물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알지 못하는 발신자들의 메일을 열지 않고 지워 버리도록 지도하십시오. 스팸 메일 수신을 취소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발신자들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더 많은 스팸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팸 메일을 열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스팸 메일을 받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채팅 방을 방문하지 않도록 설득하십시오. 채팅 방은 자녀들이 온 세상의 다른 어린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중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들은 또한 침입자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채팅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십시오. 컴퓨터에서 채팅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채팅을 차단하는 필터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자녀들이 채팅 방을 꼭 들어가야 한다면 하루 중 언제, 얼마 동안 채팅을 할지 정하고 저속한 내용이 있는지 감시하는 감독자가 있는,

어린이들만을 위해 고안된 평판 있는 채팅 방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대화를 감시하십시오.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실명, 나이, 학교, 암호 및 기타 어떤 개인 정보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가장 순진하게 보이는 방문자조차도 거짓 아이디(ID)를 가장한 침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즉석 메시지나 비밀 메시지를 피하라고 말하십시오. 바이러스, 외설 사진 및 기타 저속한 내용이 비밀 메시지를 통해 보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의 다른 어떤 주요 수단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선이나 악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모으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터넷을 학교 수업이나 오락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직업을 위해서도 인터넷 기술이 필수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비실용적인



청소년은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

“우리의 젊은이들은 ... [유혹]을 이기는 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상당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좋은 친구들의 힘이 필요하며, 범람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도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보다 더욱 민감하지만, 모든 세대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2쪽.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최신의 정보를 갖추도록 하고 늘 경계를 늦추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의 표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시켜서 그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언들은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면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수업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늦추거나 힘에 겨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보는 것들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마리오 하이플은 캘리포니아 앤터스 스테이크 앤더스 와드의 회원이다.

용어풀이

브라우저: 사용자들에게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 있는 페이지들을 찾아보게 해주는 프로그램. 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에는 익스플로러(Explorer)와 넷스케이프(Netscape) 두 종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다.

채팅 방: 실시간에 사용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광장

즉석 메시지: 둘 이상의 컴퓨터 사용자들 간의 실시간 메시지 교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여러분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등록하는 서비스

검색 엔진: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특별한 단어나 구절을 탐색함으로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또는 웹 페이지 주소

바이러스: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염” 시키고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



질 의 응답

“외설물이 제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마 약처럼 외설물도 중독성이 있어서 혼자 극복하기가 무척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은 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 부모 및 후기 성도 가족 봉사부(www.providentliving.org)가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설물을 보는 습관이 진전되고 조절이 안 되는 중독에 이르기 이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형제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친절과 참을성과 이해심을 가질 것입니다.

형제님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형제님이 외설물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야기함으로써 형제님은 형제님을 붙잡고 있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또한 그분이나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축복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진 형제님을 다른 사람이 돕기도 하지만 형제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외설물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님과 형제님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 부모님 및 전문 상담자 모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대체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관되게 복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님은 형제님의 삶에 성신을 불러들이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혹 받을 상황을 피하고 불결한 생각이 맘속에 들어오면, 즉시 생각을 바꾸십시오.

-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교회와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힘을 찾습니다. 치유의 힘은 구세주로부터, 또한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죄는 형제님이 회개할 때 형제님의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일관된 의로운 생활은 형제님을 변화시켜 더 이상 형제님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 형제님이 유혹 받으리라고 알고 있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인터넷을 혼자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비디오나 잡지를 내다 버리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 외설물을 보는 일을 대충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건전한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취미나 관심사로 시간을 보내거나 형제님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음 안에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외설물을 극복하여 그것이 선교사 봉사, 성전 결혼, 창남일 경우엔 신권 봉사와 같은 축복을 합당하게



누릴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외설물을 보려는 유혹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즉시 형제님의 생각과 상황을 바꾸십시오. 기도와 찬송가와 경전 읽기를 함으로써 영을 불러들이십시오. 만약에 형제님이 굴복할지 저항할지를 생각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다면 그 문제 쪽이 심중 팔구 이길 것입니다.

유혹에 꺾였을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형제님은 최선의 노력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에게도 외설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유혹을 이겨 내도록 도와 줄 몇 가지 일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면서 유혹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의 낙약함이 느껴질 때에는 컴퓨터를 끄고 다른 어떤 일을 합니다. 때때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 제 주변에 있을 사람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제가 외설물에 대한 생각을 시작한다면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생각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만약 형제님이 진심으로 외설물을 멀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이 떠오를 때마다 경전을 읽고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에조케오겐 페이스 이모, 19세, 포트허커트 나이지리아 스테이크 미니 오코로 와드



이러한 혐오스런 것을 보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하며 경전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아버지와 지역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므로 형제님이 극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로드리고 바로스 소아레스, 19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사우스 스테이크 니루 울프 와드

첫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형제님을 돕고 싶어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죄에 깊이 빠져 있다 해도 그분은 형제님이 그분께 기도드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둘째, 문제에 대해 형제님의 부모님께 얘기하십시오. 부모님은 형제님이 유혹의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님의 감독님께 얘기하십시오. 그분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이 유혹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회개의 단계를 밟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트 스미스, 18세,
레이턴 유타 노스 스테이크 오크 포레스트 제2와드



형제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형제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사탄의 울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에 등록하십시오. 교사들은 형제님이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읽을 좋은 잡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베로니카 에스 페이나필, 15세,
바콜로드 필리핀 노스 스테이크 바타 와드



가능한 한 인터넷에서 멀리 계십시오. 인터넷은 사탄이 형제님을 최대한 유혹하는 곳입니다. 외설물을 이야기 거리로 삼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보고 싶은 유혹에 다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일 라스턴, 13세, 워싱턴 타코마 스테이크
크레센트 밸리 와드



영적인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간구하십시오. 부모님과 감독님 ... 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겁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지도자들께서 귀중한 격려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0쪽.

형제님의 컴퓨터에서 모든 외설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우연히 하나라도 나타나면 컴퓨터를 꺼 버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 멈출 때까지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외설물이나 비슷한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을 없애 버리십시오.

로렌 서머데니, 17세,
퀸 크릭 애리조나 이스트 스테이크 스카이라인 와드

감독님의 지도를 구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형제님을 영적으로 교화시킬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세상의 쾌락이 오래가지 않는 반면 복음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이서스 프랜시스코 다 실바, 18세,
브라질 브라질리아 타과팅가 스테이크 브라즈란디아 와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도움 없이 형제님을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계속해서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이유로 너무 늦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군가 옆에 있게 하십시오.

나탈리 힐, 16세, 잉글랜드 요크 스테이크 해레게이트 와드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와드,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그리고 사진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9/0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5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저는 언제쯤 시련에서 벗어날까요?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뻐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요하는
주제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늘의 가장 큰
은사의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65쪽)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모세서 1:39: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아브라함서 3:24~25: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 주 그들의 하나님
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이
지구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서 … 알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학교에 와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교훈을 터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은 그분과 우리의
가시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함께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사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이 주신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변화된 성품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2002년 10월호,
16쪽)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시련을 견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포괄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생에서의 시련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은 3막으로 구성된 연극 중 제2막만
보고 전체를 다 알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시련을 참아 낼 수 있고,
고통 중에 그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잘 견뎌”,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0쪽)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청년 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 겸손히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How Will They Know
Unless We Teach Them So?” [address
delivered at Young Women open
house, 2003년 가을] ■



머물러야 할 곳

유럽의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최상의 선택인,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센터

재닛 토마스
교회 잡지

비 샤커에겐 그
모든 것이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비샤커 램은 한 친구에게서 “종교 교육원”이라는 곳에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사실상 종교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였다. 첫 방문에서 그녀는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작은 인원의 교실을 보았다. 비샤커는 놀랐다. “그들은 실제로 이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힌두 교도로 자랐고 우리에게 영원한 결혼이라는



사진: 토마스 알렉산더와 미클린 알렉산더, 포사틴 부부는 재민

개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반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순수하고 분명했으므로 그것이 흥미를 끌었어요. 마치 진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샤커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갔기 때문에 인도에서 교회에 가입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교회와 그 흥미로운 종교 교육원 교실을 잊지 않았다. 베를린에 도착한 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했고, 선교사들은 그녀를 종교 교육원에 데리고 갔다. 그녀는 베를린 종교 교육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도착했다. 교회는 스테이크 센터 옆에 새 종교 교육원 건물 공사를 이미 끝낸 후였다. 이 다목적 건물에는 배구와 농구 등의 운동을 위한 방과 부엌, 라운지, 도서관 및 여러 교실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센터는 이제 종교 교육원이 새롭게 강조하는 청년 독신 성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따뜻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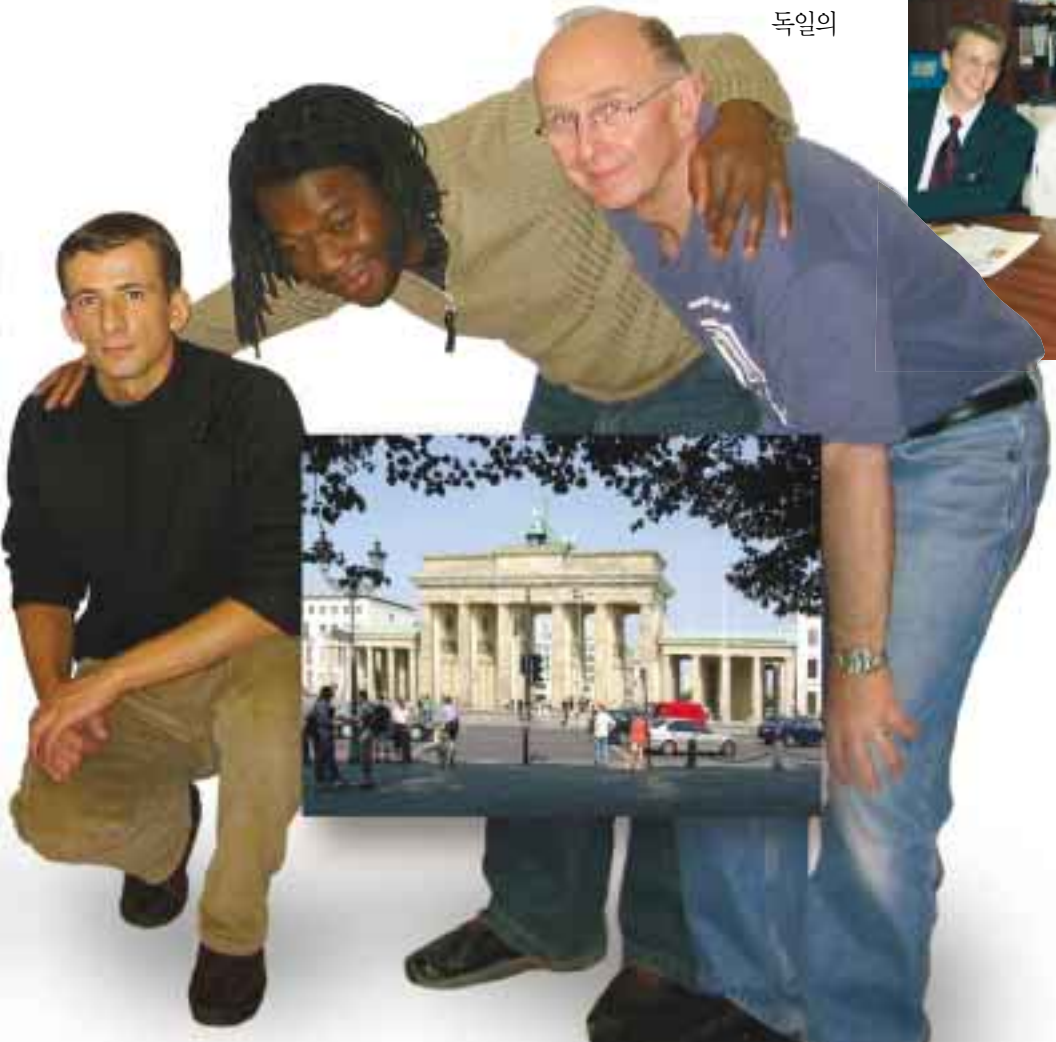
일년 반 조금 전에 중부 유럽에서 큰 실험 하나가 시작되었다. 당면 과제는 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활동적인 청년 독신 성인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저활동화 된 자들을 활동화시키고, 그 연령층의 그룹을 더 많이 교회로 개종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답은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편안한 장소, 사교적인 장소,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적절한 시설이 여러 활동과 수업에 이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4개의 시설이 문을 열었다.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센터라고 불리는 네 개의 센터들은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독일의 베를린, 함부르크 및 라이프치히에 자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가 나중에 독일의

베를린 종교 교육원에서 댄스를 위한

장식을 하고 있는(왼쪽부터) 레이자 소키엘, 크리스티나 마린코빅, 비샤커 램, 패릿즈 자매, 시도워즈 자매, 미로슬라브 리맥, 샘 알리 및 알렉산더 장로. 아래쪽: 가르치고 있는 에버트 장로와 프라우스 장로. 맨아래: 크리스티나 마린코빅이 종교 교육원 활동에 의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맨 위: 종교 교육원 수업, 예를 들어 교회 역사반은 교회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자들의 목마름을 채워 줄 수 있다. 위쪽: 주러 탕기스는 청년 독신 성인 센터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다.

뒤셀도르프에 더해졌다. 그 밖의 몇 곳은 개발 중에 있다. 이들 센터들은 종일 열려 있거나 오후와 저녁 시간에 열려 있다. 젊은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수업을 듣고 활동하러 올 수 있으며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집까지 가는 시간을 아끼도록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은 뒤, 교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겐 학교나 일이 끝난 뒤 집까지 갔다가 종교 교육원 수업이나 활동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센터는 하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려 준다. 그 곳은 청년 독신 성인들이 와서 배우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편한 마음으로 온갖 활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 곳은 또한 선교사들이 이 연령층의 구도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소로 쓰이기도 한다.

부부 선교사로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센터의 지역 책임자로 부름 받은 칼 웹브 장로와 디나 웹브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곳은 젊은이들이 와서 온갖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우정 증진을 하고 영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이 곳은 교회로 다시 복귀되기 위해 오는 장소입니다.”

변화하는 선교 사업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센터의 우정 증진

부분은 선교 사업이다. 각 센터에는 두 명의 선교사 팀이나 두 명의 선교사들에 전임 부부 선교사가 더해져서 일하도록 지명 받는다. 그들은 18세에서 30세까지의 활동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이나 비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이 센터들은 스테이크와 교회 교육 기구와 협의해서 일하며 대학교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장소를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교 사업에서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웹브 장로는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 독신 성인 학생들을 접촉하고 있는 두 명의 선교사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들이 처음으로 접촉한 10명의 사람들은 무조건 거절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청년 독신 성인들을 위해 온갖 종류의 활동과 수업을 받을 만한 훌륭한 새로운 센터가 근처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접근 방법을 바꾸었다. 선교사들은 그 다음으로 접촉한 30명의 사람들 중 28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러 탕기스는 선교사가 우정 증진한 독신 청년녀다. 그녀는 몽골에서 독일로 왔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기 원했고 종교 교육원에 그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반은 공짜였어요.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몇 분의 장로들을 만났고 그들은 세계 교회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사실상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독교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어요.”라고 주러는 말한다.

티어가튼 와드에 다니는 21세인 주러는 베를린 종교 교육원에서 발견한 활동과 우정에 끌렸다. “종교 교육원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곳은 교회를 알게 되는 훌륭한 장소였어요.” 주러는 일년 조금 전에 침례 받았다.

40년의 러브 스토리

티어가튼 와드에서 온 23세의 크리스티나 마린코빅은 그 센터에 전임 부부 선교사가 있어서 갖는 이점 중 하나가 이들 평생 교회 회원들이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보이는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티나는 처음에 그녀의 언니에 의해 종교 교육원에 갔다. “저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훌륭한 결정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어 좋았어요. 그들은 술이 없어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것은 제게는 조그만 기적이었어요. 지금은 저도 같은 입장이예요.”라고 크리스티나는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그 센터에서 임무 지명을 받은 부부 선교사인 토마스 알렉산더 장로와 마릴린 알렉산더 자매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종교 교육원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좋은 모범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4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멋지게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보기에 너무 좋아요.”

다렘 와드에 다니는 24세의 비어짓 플레스도 동의한다. “종교 교육원은 아름다운 곳이며 훌륭한 영을 지닌 곳이에요. 우리에게 훌륭한 부부 선교사가 있어요. 그 곳은 긴장이 풀리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또한 그 곳은 당면한 필요 사항을 채워 준다. 함부르크에서는 한 청년이 다시 활동화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부부 선교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 그가 컴퓨터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종교 교육원 센터에서 평온을 찾아 다시 완전히 활동적이 되었다.

군대 복무로 라이프치히에 주둔하고 있던 한 독신 청년은 청년 독신 성인 센터를 발견하고 정기적으로 수업과 활동에 참여했다. 군대 생활은 가정에서의 생활과 많이 달랐으므로 그는 같은 이상을 가진 자들의 주변에 있길 갈망했다. 그리피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센터에서의 활동이 막 끝났을 때 그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늦게 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는 ‘저는 와야 했어요.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샤커에게로 돌아가서

침례 받고 꼭 일년 반이 된, 랭크윙트 와드의 26세의 비샤커는 종교 교육원의 학생 평의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베를린 청년 독신 성인 센터에서는 거의 매일 밤 활동이나 수업이 있다. 그녀는 25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회 역사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종교 교육원으로 보서는 반이 너무 커요.”라고 비샤커가 말한다. 그녀는 몇 가지 활동을 더 시작하고 미술관과 콘서트에 갈 기회도

더 많이 가지며 게임 같은 재미있는 활동도 더 늘리고 어찌면 영화 보는 저녁 및 더 많은 간증 모임을 가질 것에 마음 설레고 있다. “지금까지는, 댄스 과정이 없었어요.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비샤커는 말한다.

청년 독신 성인 센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피난처와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장소를 발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라면 그들은 센터의 가족이 갖는 가정의 밤에 참석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훌륭한 조언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표준에 대한 도전을 받을 걱정 없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그들은 센터에서 그러한 활동을 찾을 수 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할 때 그들은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

청년 독신 성인 센터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방법을 돕기 위해 그 곳에 있다. 그 센터들은 인생의 폭풍우로부터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평화를 찾는 장소가 된다. ■

발전과 진보

“우리는 청년 독신 성인 센터에서 청년 독신 성인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스테이크 센터가 리모델링 되어 종교 교육원이 합쳐졌습니다. 시설은 스테이크 내의 약 120명의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이용됩니다.”라고 베를린 종교 교육원 책임자인 호스트 그루스가 말한다.

“선교사 부부 한 팀이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과 종교 수업, 지도력, 결혼 준비 및 경전 공부를 하고 있으며,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영어 및 기타 언어 반 그리고 선교사 준비와 같은 실용적인 반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스테이크 스포츠 센터, 댄스, 바베큐, 봉사 계획 및 콘서트와 강의와 같은 대규모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활동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위한 이 우정 증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새로운 열의를 보아 오고 있습니다.”



원문: 단체 사진: 칼 웨버의 다나 웨버; 오른쪽: 독일 목회자 사진: 내이던 켈러; 컴퓨터 마우스 사진: 폴링; 왼쪽: 올버트 시엔더스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은 그들의 임무를 협동과 단합으로 “정의와 기록함과 겸손으로” 행하길 간구합니다.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의 일곱 번째 부분

열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후 기 성도로서 여러분은 아마도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칠십인이 교회 연차 대회
모임이나 지역 모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나 교회 잡지를 통해서 이들 지도자들이
쓰신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칠십인
정원회의 조직 방법이나 칠십인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먼저 간략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835년 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칠십인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칠십인 부름은 교회 성장에 필요한 변화하는 요구에 부합하여 발전했습니다. 1975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재조직하였고 그 다음해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 받은 21명이 칠십인으로 성임되고 제일 정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10년 뒤인 1986년에 온 교회의 스테이크에 있는 칠십인 정원회가 해산되고 칠십인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장로 정원회로 돌아오거나 대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3년 뒤인 1989년,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정원회의 회원은 5년 동안 그 부름에서 봉사합니다. 제일 정원회 회원은 명예 회원으로 지명되는 70세까지 봉사합니다. 그 부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칠십인의 두 정원회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으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전임으로 봉사하며 세상 어떤 곳에서든 교회를 감독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습니다.

칠십인의 임무

후일의 계시들은 칠십인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교리와 성약 107:25) 된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십이사도 … 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교리와 성약 107:34) 합니다.

칠십인의 독특하고 유일한 부름은 계시를 통해 분명히 확증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베를기 위한 여러 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대신에 칠십인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의무니라.”(교리와 성약 107:38)

칠십인은 추가적인 신권 열쇠를 받지 않지만 제일회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받는 각 임무를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권세를 위임 받습니다.

칠십인 총관리 역원들은 정규 정원회 모임에서 만납니다. 교회 본부에 임무 지명을 받은 자들은 매주 만납니다. 이들 정원회 모임들은 교리 및 교회 역사 지침, 훈련, 때때로 십이사도 및 칠십인 회장단의 권고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추가 칠십인 정원회

1997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삼, 제사 및 제오 칠십인 정원회를 조직했습니다. 2004년에는 제육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고, 2005년 4월에는 제칠 및 제팔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들 여섯 개의 정원회에는 현재 19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회들의 회원들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충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지역 칠십인으로 불리며, 칠십인 총관리 역원과 구별됩니다.

지역 칠십인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위임 받은 기간 동안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과 같은 기본적인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범세계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지역에서 봉사한다는 예외와 함께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 주는 것들과 유사한 임무 지명을 받습니다.

이들 여섯 개의 정원회들은 지리적으로 조직됩니다. 제삼 정원회에는 유럽 및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칠십인들이 포함됩니다. 제사 정원회 회원들은 멕시코와 중미, 그리고 남미의 북부 지역에 살고, 제오 정원회 회원들은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 있으며, 제육 정원회 회원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중부, 남부 및 동부와 카리브 해에 삽니다. 제칠 정원회에는 브라질과 남미의 남부 지역의 지역 칠십인들이 포함되며, 제팔 정원회는 아시아,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 그리고 감리 감독단과 함께한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 ...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 받는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은 “온 세상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들이다. 칠십인 회장단은 이들 정원회들을 감리한다. 앉은 줄(왼쪽부터): 알 시 퉁기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찰스 디디에이 장로, 선 줄: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로버트 시 옥스 장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지역 칠십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여섯 정원회의 회원들은 4월 연차 대회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연례 정원회 모임에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지리적으로 지정한 곳의 특정 장소에서 만납니다.

계시에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여 요구되면 … 칠십인을 칠십의 칠 배까지”(교리와 성약 107:96) 추가하여 칠십인 정원회를 조직하라는 허락이 담겨 있습니다.

칠십인 회장단

칠십인 회장단은 이들 칠십인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을 관장합니다. 칠십인 회장단은 제일 정원회 및 제이 정원회의 7명의 회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일회장단에 의해 부름 받고 칠십인을 감리하도록 권세를 받습니다.

“나의 이름을 증거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세워진 본보기를 따라 현대의 칠십인 정원회는 “제정되나니 … 나의 사도들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는”(교리와 성약 124:139)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협동과 단합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신앙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로”(교리와 성약 107:30, 또한 27절 참조) 행하길 간구합니다.

칠십인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봉사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 교회의 영광 받은 조직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

그림: 해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원의 일부, 해리스 콘로이 사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복사 금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물몬경을 소중히 여기라. 매우 소중한 책.
(물몬서 8:14 참조)



날짜(서기)	10월.	11월.	12월.	1832	2월.	3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33	2월.			
교회 본부들	오하이오 주 하이럼: 1831년 9월~1832년 9월																	
일부 일자는 대략적인 날짜임	 1831년 11월.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을 출판할 준비가 되었고 그 계시들을 계명의 책이라고 제목 붙였다.			1832년 4월. 선지자 조셉이 미주리 주를 잠깐 방문했다.			1833년 1월. 선지자의 학교가 커틀랜드에서 모임을 시작했다.(교리와 성약 88편 참조)			1832년 6월. 선지자는 오하이오 주로 돌아가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다.			1832년 9월. 선지자 조셉은 하이럼에서 커틀랜드로 가족을 이사시켰다.			1832년 10~11월. 선지자 조셉과 뉴얼 케이 휘트니는 교회 사업을 돌보기 위해 동부의 몇몇 도시를 여행했다.(교리와 성약 84:114~115 참조)		
	1831년 12월. 뉴얼 케이 휘트니가 오하이오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교리와 성약 72편 참조)			1832년 3월. 한 폭도가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에게 타르칠을 하고 깃털을 쫓았다. 선지자의 가족이 잠시 동안 커틀랜드에 다시 왔다가 하이럼으로 돌아갔다.			1832년 11월. 최근의 개종자인 브리검 영과 허버 시 킴볼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1832년 1월. 조셉 스미스가 대신권 회장으로 성임되었다.(교리와 성약 75편 참조)																	
	65-66			71-72			73-75			76			77-81					
	1, 67-70, 133																	
	82-83																	
	85																	
	86-88																	
	89																	
	99																	
8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2: 65~137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교리와 성약 각 편의 머리글과 History of the church 참조.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제2가: 1832년 9월~1838년 1월

오하이오

■ 1833년 여름, 장로들을 위한 학교가 미주리에서 조직되었다.

■ 1833년 7월, 한 목도가 미주리 주의 교회 신문사 사무실을 파괴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잭슨 군으로 떠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



■ 1833년 10~12월, 미주리에서 무장 충돌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잭슨 군에서 쫓겨났다.(교리와 성약 100:13, 15; 101편 참조)

■ 1833년 11월~1836년 6월, 미주리 주 성도들은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다.

■ 1833년 6월 5일, 커틀랜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 1833년 7월 2일,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주요 성경 번역을 끝마쳤다.

뉴욕

101

■ 1833년 12월 18일, 선지자 조셉은 부친인 조셉 스미스 일세를 교회의 축복사로 성임했다.

102-3

■ 1834년 2월 17일, 교회의 첫 번째 고등 평의회가 커틀랜드에서 조직되었다.

104

■ 1834년 2~5월, 선지자와 그 밖의 사람들이 시온 구속에 참여할 지원자들을 부탁했다.

미주리

■ 1834년 5월, 시온 진영이라 불리는 한 무리가 미주리로의 서부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이 미주리 주에 도착할 무렵 그 수는 200명이 넘었다.

105

■ 1834년 6월, 주님의 명에 따라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표시로 시온 진영은 해체되었다.(교리와 성약 105편 참조)

106



편수(또한 위에 있는 원 안의 숫자 참조), 그 편이 주어질 날짜, 계시가 주어진 상황:

65편. 1831년 10월 조셉 스미스가 하나의 기도라고 명명한 이 편은 선지자가 성경 번역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어졌다.

66편. 1831년 10월 25일 새로운 개종자인 윌리엄 이 매클렐른이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간구했다.

67편. 1831년 11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계시의 출판에 관한 대회에서 몇몇 형제들이 계시의 용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주님의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다.

68편. 1831년 11월 올슨 하이드, 룩 에스 존슨, 라이먼 이 존슨 및 윌리엄 이 매클렐른이 주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했다.

69편. 1831년 11월 올리버 카우드리는 계명의 책 원고와 교회 기금을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운반하도록 임명되었다. 광야가 종종 위협했기

때문에 존 휘트머가 여행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다.

70편. 1831년 11월 12일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모든 교회의 공식 문헌과 그 출판에 관한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

71편. 1831년 12월 1일 에즈라 부스가 배도하여 허위적이고 악랄한 9통의 편지를 써서 오하이오 스타 지에 출판했다. 이것에 따른 교회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명을 받았다.

72편. 1831년 12월 4일 몇몇 장로들과 회원들은 자기들의 임무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73편. 1832년 1월 10일 교회의 장로들은 1832년 1월 25일에 앰허스트에서 열릴 다음 대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했다.

74편. 1832년 1월 이 계시는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설명으로서 받았다.

75편. 1832년 1월 25일 앰허스트의 대회에서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시 알고 싶어했다. 몇몇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동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76편. 1832년 2월 16일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들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열리고 “시현”으로 알려진 이 계시를 받았다.

77편. 1832년 3월 계시록을 번역하는 동안 형제들은 요한의 기록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졌다.

78편. 1832년 3월 선지자 조셉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헌납의 법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창고 설립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79편~80편. 1832년 3월 제이레드 카터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고자 오하이오 주 하이럼으로 왔다. 그는 동쪽 나라로 선교 사업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조적으로 스티븐 버넷과 이든 스미스는 어디든 자신들이 선택한 곳으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도록 부름 받았다.

81편. 1832년 3월 이 편은 제일회장단의 정식 조직을 위한 준비로 주어졌다. 원래는 제시 고즈에게 주어졌지만 배도로 인해 프레데릭 지



히버 시 킴볼 1801~1868



올슨 하이드 1805~1878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1792~1872



엘리자 알 스노우 1804~1887



메리 필딩 스미스 1801~1852

원문: 삽화: 로버트 티 배넷; 맨 위(왼쪽부터): 계명의 책 사진: 앨런 케이 린소우만; 그림: 폴 먼, 뉴얼 케이 휘트니 성경에서의 조셉 스미스, 복사 금지; 그림: 샘 로울러, 한 목도의 공격을 받은 선지자 조셉, 복사 금지; 그림: 윌리엄 레인, 커틀랜드 성전 건축 세부도; 그림: 시 에이 크리튼슨,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쫓겨나는 성도들 및 시온 진영 시,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복사 금지; 아래쪽: 히버 시 킴볼과 올슨 하이드의 조각: 프레데릭 호우킨스 피어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제 2기: 1832년 9월~1838년 1월

미주리 주 파웨스트: 1838년 3월~1838년 1월



1836년 여름, 성도들은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835년 말~1836년 초, 첫 번째 교회 찬송가집이 출판되었다.

1838년 7월~1838년 4월, 대영제국에서의 첫 번째 선교사들이 약 1,500명의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1838년 3월, 선지자 조셉과 그의 가족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정착했다.

1838년 7월 8일, 주님께서 십이사도들에게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18편 참조)

1835년 2월,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다. (교리와 성약 107편 참조)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이 위대한 영적인 나타남들 가운데 헌납되었다.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1836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받아 주셨다. 그 뒤에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아가 나타나 신권 열쇠를 회복했다.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838년 8~10월, 미주리에서 교회 회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무장 충돌이 시작되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보호를 위해 파웨스트에 모였다.

1835년 7월, 교회는 몇 개의 애굽 미이라와 두루마리를 구입했다. (아브라함서 1~5장 참조)

1835년 8월 17일, 성회에서 성도들은 계시들을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할 것을 수락했다.

1838년 1월, 선지자 조셉과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커틀랜드를 떠날 것을 강요당했다.

1838년 4월, 배도한 몇몇 저명한 교회 지도자가 파문당했고, 일부는 선지자의 적이 되었다.



윌리엄에게로 대체되었다.

82편. 1832년 4월 26일 선지자 조셉은 78편에서 시온으로 가서 지도자들에게 헌납의 법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시온으로 여행했고 한 모임에서 오하이오 주에서 지지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신권의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83편. 1832년 4월 30일 시온을 짧게 방문하는 동안 선지자는 헌납의 법에 따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에 관해 가르쳤다.

84편. 1832년 9월 22~23일 장로들은 동부 여러 주에서 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일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85편. 1832년 11월 27일 이 편은 선지자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펠프스는 헌납의 법을 관리하는 에드워드 패트리치 감독을 돕도록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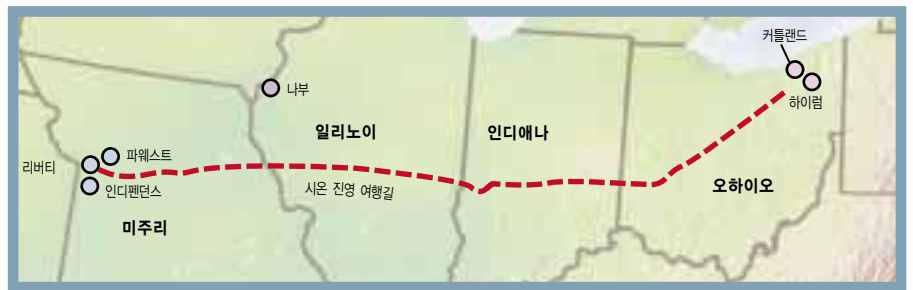
86편. 1832년 12월 6일 선지자 조셉이 성경 번역 및 교정을 하고 있는 동안,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

87편. 1832년 12월 25일 선지자 조셉은 국가들 사이와 미합중국 내의 분쟁이 성도들에게 큰 근심이 되고 있을 때에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88편. 1832년 12월 27~28일 대제사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은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 가르쳐 주었다. 형제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의 뜻을 받고자 각각 차례로 주님께 기도드렸다. 이 계시는

“감람잎”으로 알려졌으며 그 뒤를 이어 1833년 1월 3일에 127절에서 141절까지가 주어졌다. 89편. 1833년 2월 27일 선지자 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흠연과 그에 따른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선지자가 주님께 문의했다.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다. 90편. 1833년 3월 8일 이 계시는 선지자와 형제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으며 제일회장단 구성에 있어 한 단계 더 추가된 계시였다.

91편. 1833년 3월 9일 선지자가 영감역을 위해 사용한 성경에는 외경이 담겨 있었다. 현재의 킹 제임스 판 성경에는 그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지자의 간구에 따라 주님은 그 문서를 번역할 필요가 없음을 계시하셨다. 92편. 1833년 3월 15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다. 주님은 윌리엄스 형제가 협동 교단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93편. 1833년 5월 6일 선지자는 구약을 번역하고 있었다. 94편. 1833년 5월 6일 한 모임에서 인쇄소와 선지자의 학교 모임 가옥을 건립할 기금 모금을 위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얼마 후에 이 계시가 주어졌다.



윌라드 리처즈 1804~1854



지나 디 에이치 영 1821~1901



조지 에이 스미스 1817~1875



윗세바 더블류 스미스 1822~1910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1787~1842

1839년 2월 일리노이 주 내부: 1839년 5월~1846년 2월

1839년 4월, 리버티 감옥에 몇 달 동안 감금된 후, 선지자는 일리노이 주에 도착하여 성도들을 위한 땅 구입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1838년 10월, 미주리 주 지사가 성도들에 대한 군사 행동을 명령했다. 민병대가 파웨스트에 진을 쳤다.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 관리들의 손에 배반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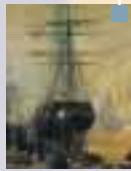
121-23

1838년 11월~1839년 2월, 브리검 영과 히버 시 킴블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일리노이 주로 피신했다.



1839년 7월, 많은 회원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신권의 권세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1839년 8~9월, 사도들이 대영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출발했다.



1840년 6월, 영국 성도들이 내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840년 8월, 선지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내부 일리노이

124 125

1841년 1월, 제일회장단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부로 모이도록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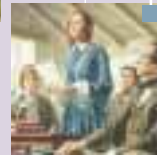
1841년 4월 6일, 성전을 지으라는 주님의 명을 받고(교리와 성약 124편 참조) 성도들은 내부 성전의 초석을 놓았다.

1841년 4~7월, 대부분의 사도들이 대영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부로 돌아왔다.

126



1841년 10월 24일, 올슨 하이드가 유대인의 귀환을 위한 성지를 헌납했다.



1842년 3월 17일, 에머 스미스를 회장으로 한 내부의 여성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다.

1842년 3~5월, 웬트워스 서한(신앙개조 포함)과 아브라함서가 출판되었다.

1842년 5월 4일, 선지자는 성도 몇 명에게 성전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95편, 1833년 6월 1일 하이럼 스미스, 제이레드 카터 및 레이놀즈 케이훈이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도록 임명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짓기 6개월 전에 주어진 그 거룩한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회람을 돌렸다. 95편은 회람을 돌리는 바로 그 날에 주어졌다.

96편, 1833년 6월 4일 대제사 모임에서 형제들은 교회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여쭙기로 했고 주님은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이 성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97편, 1833년 8월 2일 이 계시는 올리버 카우드리 및 시온의 다른 형제들이 장로들의 학교에 관하여 보낸 서신에 대한 응답이었다.

98편, 1833년 8월 6일 미주리 주 성도들은 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다. 이 계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

99편, 1832년 8월 존 머독에게 주어진 계시.

100편, 1833년 10월 12일 선교 사업 동안 선지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101편, 1833년 12월 16일 선지자는 미주리 주 잭슨 군으로부터 성도들의 추방 소식을 받고 주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쭙었다.

102편, 1834년 2월 17일 이 편은 최초의 고등 평의회 회의록이다. 선지자는 시현으로 그에게 제시된 교회 평의회를 위한 고대의 방식을 설명했다.

103편, 1834년 2월 24일 미주리 주 성도들은 팔리 피 프랫과 라이먼 화이트를 보내어 시온에 있는 성도들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회복될지 알아보려 했다. 이 계시는 선지자가 시온 진영을 조직하도록 권세를 주었다.

104편, 1834년 4월 23일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협동 교단이 개인의 청지기 직분으로 나누어졌다.

105편, 1834년 6월 22일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 시온 진영이 도착하기 직전에 주지사는 약속했던 도움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재산 회복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106편, 1834년 11월 25일 워렌 에이 카우드리에 관한 이 계시는 선지자 조셉이 장로들의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주어졌다.

107편, 1835년 3월 28일 동부 여러 주에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로 십이사도는 주님께서 그들의 일을 인도할 기록된 계시를 요청했다.

108편, 1835년 12월 26일 영의 영향력 아래 7명의 칠십인 회장 중 한 명인 라이먼 알 서먼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의무를 가르칠 계시를 받으러 왔다.

109편,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가 계시로 선지자 조셉에게 주어졌다.

110편,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일주일 후에 열린 한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회장으로 가려진 설교단에서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끝낼 때 이 영광스런 시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111편, 1836년 8월 6일 메사추세츠 주 살렘에서 기금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 하이럼 스미스 및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부채를 줄이기를 바라면서 그 곳에 갔다.

112편, 1837년 7월 23일 이 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십이사도 정의회를 인도할 십이사도



레이놀즈 케이훈 1790~1861



메리 안 영 1803~1882



팔리 피 프랫 1807~1857



사라 엠 그랜저 킴블 1818~1898



엘리자베스 안 휘트니 1800~1882

맨 위(왼쪽부터): 그림: 델 피슨,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신 주님; 그림: 로버트 디 배넷, 영국에서의 복음의 첫 열매; 그림: © 그렉 케이 울슨, 리버티 감옥에서의 조셉 스미스; 밑 폰드 신문사의 신앙의 시현 수첩에서, 베니사, 플로리다, 복사 금지; 그림: 게리 이 스미스, 내부에서의 병 고침, 복사 금지; 그림: 켈 맥스타; 그림: 폴 먼, 올슨 하이드의 유대인 귀환을 위한 성지 헌납; 아래쪽(왼쪽부터): 윌리엄 리처드의 조각; 프레드릭 호우킨스 피어셔; 지나 다니안사 헌팅턴 영; 존 윌리엄 크로우슨,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일리노이 주 나부: 1839년 5월~1846년 2월

1843~1844년, 선교 사업이 태평양 섬들에서 시작되었다.

129 130 131 132

1844년 6월 27일, 한 폭도가 카테지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을 살해했다.

135



1844년 8월 8일, 교회 회원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기구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와 그 회장으로 브리검 영을 지지했다.



정원회 회장인 토머스 비 마쉬를 돕기 위해 주어졌다.

113편. 1838년 3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선지자가 도착한 직후에 일라이어스 히그비와 다른 교회 회원들이 이사이야서의 특정한 성구에 대해 질문했다.

114편. 1838년 4월 17일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이 다른 십이사도 회원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권고 받았다.

115편. 1838년 4월 26일 파웨스트에서 주어진 이 계시에서 그 곳을 건설하는 것과 그 곳에 성전을 짓는 것과 교회의 완전한 이름에 관한 주님의 뜻이 알려졌다.

116편. 1838년 5월 19일 이 편은 선지자 조셉이 아담 온다가 아만 방문에 관해 적은 그의 일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117편. 1838년 7월 8일 윌리엄 마크스와 뉴얼 케이 휘트니가 커틀랜드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할 일을 지시하기 위해 올리버 그랜저가 이 계시를 받고 급파되었다.

118편. 1838년 7월 8일 이 계시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오 주여 십이사도에 관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의 응답으로 선지자 조셉을 통해 주어졌다.(History of the Church, 3:46쪽 참조)

1845년 12월 10일, 성전 엔다우먼트가 나부 성전의 헌납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

1845년~1846년 겨울, 선지자 조셉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성도들은 로키 산맥으로 이동할 계획을 했다.



1846년 2월, 성도들의 첫 번째 무리가 나부를 떠나 서부로 향했다.

1846년 5월, 나부 성전이 공식적으로 헌납되었다.



1845년 9월, 일리노이 주에서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다시 생겨났다.

1846년 6월, 첫 번째 개척자 대대가 미주리 강에 도착했다.

119편. 1838년 7월 8일 교회의 재정난, 지도자들 및 성도들의 헌납의 법 실패가 이 계시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십일조의 법의 확대를 가져오게 했다.

120편. 1838년 7월 8일 형제들은 십일조를 통해 주어진 재산의 처리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

121편, 122편, 123편. 1839년 3월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그들의 고난을 듣고 리버티 감옥에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했다.

124편. 1841년 1월 19일 성도들이 나부에 모였을 때 선지자 조셉은 주님으로부터의 인도를 구했고, 다른 계시와 함께 성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125편. 1841년 3월 나부에서의 성전 계획이 발표된 후에 성도들이 미주리 강을 건너 나부로 이동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질문이 나왔다.

126편. 1841년 7월 9일 브리검 영은 집을 떠나 외국에서 봉사해 왔었다. 이 계시는 앞으로의 외국 여행에서 그를 면제해 주었다.

127편, 128편. 1842년 9월 1, 6일 어떤 조직이나 기록 보관 없이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거행해 오다가 선지자는 두 통의 편지를 통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지시를 주었다.

129편. 1843년 2월 9일 성도들을 현혹시키려는 사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인지, 악마로부터 오는 자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에 관한 지시가 필요했다.

130편. 1843년 4월 2일 선지자 조셉은 울슨

하이드의 말씀 내용을 수정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선지자가 설교한 내용이다.

131편. 1843년 5월 16~17일 선지자는 몇몇 성도들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 교리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신권에 관한 지시를 주면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선포했다.

132편. 1843년 7월 12일 이 편은 하이럼 스미스의 요청으로 에머 스미스에게 영원한 결혼의 원리에 대한 참됨을 확신시키기 위해 계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오게 되었다.

133편. 1831년 11월 3일 계명의 책이 계획되자 주님은 이 책에 첨가될 부록으로서 이 계시를 주셨다.

134편. 1835년 8월 17일 이 편은 지상의 율법에 관한 선언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입장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의 초판에 포함되도록 준비되었다.

135편. 1844년 6월 27일 존 테일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를 둘러싼 당시의 상황을 적었다.

136편. 1847년 1월 14일 브리검 영 회장은 서부로의 힘든 여행을 위해 성도들을 어떻게 조직할지 알 필요가 있었다.(이 목록은 도표 3에 나타나 있음)

137편. 1836년 1월 21일 커틀랜드 성전이 거의 완성될 무렵 교회 지도자들의 한 모임에서 엔다우먼트의 예비 의식이 집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 한 편을 포함한 계시들과 시헌들을 받았다.



뉴얼 케이 휘트니 1795~1850



브리검 영 1801~1877



존 테일러 1808~1887



윌포드 우드럽 1807~1898



로렌조 스노우 1814~1901

알고 계십니까?



에라스터스 스노우

8월에 일어난 일

1850년 8월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첫번째
개종자 15명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라스터스

스노우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1861년 8월 5일: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도착했다.

1970년 8월
1일: 에콰도르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현재
에콰도르에는 세
개의 선교부가 있다.

1977년 8월 24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복음 전파를 위해 폴란드를
헌납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종한 후기 성도 윌리엄 파울러는 찬송가 가사 “말일에 선지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썼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년)은
1860년에서 1863년까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한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 찬송가가 불리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파울러 형제는 Caroline Norton's “The
Officer's Funeral March”의 곡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죽음을
당한 어느 군인을 위해 만든 자신의
음악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를 찬양한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할 책임과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은 여러분의 부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으며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행을 고양시키고
향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 여러분의 말이 참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며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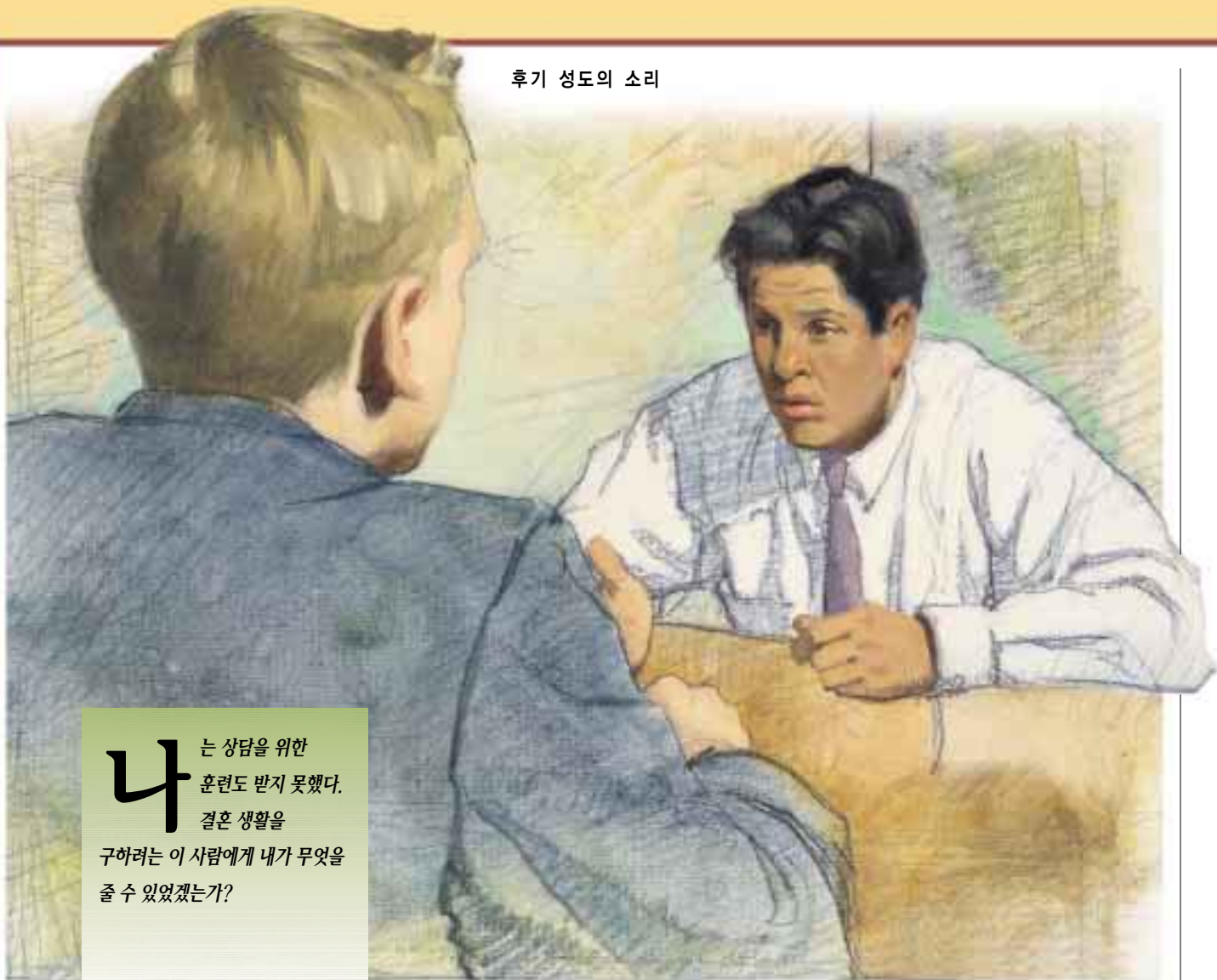
LDS 지능 지수 테스트

교리와 성약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주는 훌륭한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 몇
가지 계시들이 몇 편에 나오는지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 | | |
|-------------------------------------|------------|
| 1. 영광의 세 등급 | ㄱ. 교성 4편 |
| 2. 영원한 결혼 | ㄴ. 교성 20편 |
| 3. 신권의 맹세와 성약 | ㄷ. 교성 25편 |
| 4.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 ㄹ. 교성 76편 |
| 5. 성찬 기도 | ㅁ. 교성 84편 |
| 6. 찬송가를 편집하라는 에머 스미스의 부름 | ㅂ. 교성 121편 |
| 7. 순교에 대한 존 테일러의 기록 | ㅅ. 교성 132편 |
| 8.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가 적은 이유 | ㅇ. 교성 135편 |

출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편역: 프레드릭 호킹 피델시, 에라스터스 스노우; 에콰도르의 지도, NOVA
DEVELOPMENT CORPORATION; 모든 것 결의리, 글렌 에스 홀킨슨, 복서 금지



나는 상담을 위한
훈련도 받지 못했다.
결혼 생활을
구하려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었겠는가?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페르난도는 조용히 책을 덮고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물 방울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그의 아내 마리아는 혐오와 증오가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페르난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장로님,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는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앉았던 의자가 흔들거렸고, 그녀는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켰다.

“당신 어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죠? 당신이 어떻게 이 외국인들의 가르침과 복미의 선지자를 위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거짓 경전을 위해 성경을 버릴 수 있어요? 당신은 바보예요, 정말 바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저주 받은 영혼에 자비를 잘도 베푸시겠군요.” 그녀는 획 돌아서더니 큰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페르난도는 한숨을 지었다. “제 아내는

좋은 여자예요.” 그는 변명했다. “아내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 페르난도는 예배실로 걸어 들어와서 평소처럼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연단에서 지부 회장으로로서의 임무를 행하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임이 끝나고 회중이 베네수엘라 안데스 산맥의 녹록한 양지에서 한데 어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페르난도는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다시 아내와 다투었다고 했다. 그는 꾸준히 자라고 있는 자신의 신앙 속에서 찾은 기쁨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멀리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한 협박에 그도 화가 났다. 그는 심한 말로 아내를 눈물 흘리게 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별거에 들어갔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나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내 나이 스무 살이었다. 난 결혼도 하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 가족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했지만 꿍꿍이 있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조그마한 교훈과 상처만이 남았었다. 그리고는 내 부모님의 결혼도 18년만에 끝이 났다. 나는 상담을 위한 훈련도 받지 못했다. 자신의 신앙을 희생하지 않고 결혼 생활과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위안과 희망을 주는 몇 마디 상투적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한 생각이 그 말을 밀쳐내고 나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 한동안 매끄럽지 못했던 내 스페인어가 명료하고 거침없이 나왔다.

“친구여”라고 나는 시작했다. “다음 번에 아내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화가 나고 좌절을 느끼면 멈추세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를 두 팔로 꼭 껴안으세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의 말과 형제님의 인생에서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세요.”

그는 망연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마 자신의 결혼 생활을 구할 어떤 가르침이나 위대한 원리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계속 말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네, 지부 회장님.” 하고 그가 말했다. 그 말만 하고 그는 심각한 얼굴로 내 사무실을 나갔다.

일주일이 지나고 페르난도는 다시 예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는 고개를 반듯하게 들었고, 그의 눈빛은 맑았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모임 내내 어린아이처럼 떠돌고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내 사무실로 왔다.

“지부 회장님, 지부 회장님!” 하고 그는 작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면 안 믿으실 걸요. 지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우리는 제 신앙과 침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저를 비난하고 제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틀렸다고 소리치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부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멈추고 숨을 내신 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세월과 여전히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썼지요. 아내는 내 시선에서 뭔가를 느꼈나 봐요. 아내가 화를 덜 내었거든요. 저는 두 팔로 아내를 껴안았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의 말과 내 아내로서의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까이 붙어 앉아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달고 쓴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다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러 주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지부 회장님.”

그 다음달에 나의 선교 사업은 끝이

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시간 여행을 했다. 집으로 가는 것은 즐거웠지만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페르난도와 나는 편지를 주고 받았고, 그는 자신의 소망과 실망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아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그녀는 더 관대해졌고 덜 적대적이 되었다. 그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했고 그녀에 대한 큰 사랑을 이야기했다. 한동안 우리는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페르난도에 대한 교훈은 여전히 나에게 영감을 준다. 사랑은 개념도 가르침도 관습도 아니며, 오로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다. ■

바트 벤슨은 아이다호 그레이스 스테이크 그레이스 제2와드의 회원이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요 플로레스

내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내가 신문 잡지 기자로 일하던 출판사의 편집장이 나를 안으로 불렀다. 그는 단도 직입적으로 말했다. 계속 일하고 싶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날 편집장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고 취재하러 나갔다. 갑자기 길 바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 두 명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길

바로
한가운데서
선교사 두

명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을 피했지만
내 명함을 그들에게
주었다.

한번도
없었다. 나는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을
피했지만 내
명함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틀 후 어머니의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두 명의 젊은 미국인이 널 보러 왔다는구나.” 나는 대답했다. “전 미국인 친구가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선교사라고 하더구나.” 나는 말했다. “그럼, 들어오라고 하세요. 만나보죠.” 놀랍게도 그들은 월요일에 만났던 그 선교사들이었다. 내 명함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거실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은 뒤,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기로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책자를 꺼내더니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그 곳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나에게 주면서 읽어 보라고 권했다. 내가 마지못해 그 권유를 받아들이자 다른

선교사가 파란색 표지가 있는 책을 한 권 꺼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책의 첫 150페이지를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권유도 받아들였다. 그들이 집을 나가면서 말했다.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모든 토론을 마친 후에 또다른 권유를 받았다. 선교사들 중의 한 명이 말했다. “로시요 형제님, 형제님은 직접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덧붙여 말했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몰몬경이 참된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날, 나는 그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미 다 읽은 몰몬경을 가지러 갔다. 거실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혼자였고 주변은 고요했다. 이렇게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저에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몰몬경이 참된지를 여쭙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침례를 받기 위해 간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습니까? 몰몬경은 참됩니까?”

나는 곧 말을 멈추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응답을 받은 것이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경험을 말했다.

1971년 9월 11일, 나는 피우라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때 이후로 거의 34년간 지혜의 말씀을 포함해서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길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준 그 두 선교사를 기억하고 있다. ■

힐도 로시요 플로레스는 페루 피우라 센트럴 스테이크 로스 피커스 와드 회원이다.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패멀라 엠 무디

산 들바람이 뜰에 서있는
미루나무의 잎을 살랑거렸다.
나는 계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일년도 안 되어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거의 일년 전에, 연차 대회와 휴일을 고대하는 대신에 앞으로 바쁜 시기에 어떻게 내 가족을 돌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모든 책임과 활동을 계획해야 했다. 내 가족을 위해 정상적인 삶을 지속하려 노력하고

교회 부름을 이행하면서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냈고 그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고요히 젖어 든 회상의 순간을 뒤로 하고 개 집을 치우기 위해 계단에서 일어섰다. 나는 삼과 호스를 움켜잡고 우리의 나이 많은 개 허쉬 펴이 집에서 나와 햇빛에 흠뻑 젖도록 했다.

바로 그 때 뒤뜰에서 지붕을 고치고 있던 남편이 개 집 있는 곳으로 왔다. 남편은 웃으며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에서 삼을 가져가더니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추운 날씨가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완성하려고 힘쓰고

있었다. 그는 대낮에 하던 일을 놓아두고 자리를 뜬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기치 않은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며 나는 개 집의 다른 편에 물을 뿌려 닦기 시작했다.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장수말벌 떼가 남편 주위를 둘러싸고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보였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 “남편에게 물을 뿌려라.” 나는 그렇게 했다. 심지어 그가 도망가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겨냥하여 물줄기를 날렸다. 물로 장수말벌을 물리치긴 했지만 남편은 벌에 일곱 번이나 쏘였다.

벌에 가장 많이 쏘인 남편의 왼

팔을 치료해 주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벌에 쏘이지 않은 것이다! 난 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암 때문에 내 왼 팔에서 림프절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벌에 쏘였다면 벌의 침에서 나온 독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고, 나에게 물을 뿌려 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남편에게 감사했다. 다시 한번 내 목숨이 보존된 것이었다. ■

패멀라 엠 무디는 유타 머리 스테이크 머리 와드의 회원이다.



갑 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장수말벌 떼가 남편을 공격하고 있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백백이 들어찬 홍콩의 고층 건물처럼 팍 짜인 일정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후기 성도 십대들은 복음을 위한 시간을 내는가?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홍콩 국제 지방부, 빅토리아 제1(영어) 지부의 제사인 네이던 영은 매일 새벽 세미나리에 한 시간, 학교에서 일곱 시간, 등 하교에 한 시간, 숙제 하는 데 두세 시간, 그리고 피아노 연습, 무예 공부, 학교 농구 팀 경기, 또는 학교 합창단과 노래하는 데 두세 시간을 보낸다. 그가 달리면서 아침을 먹고 저녁 식사로 한 시간을 보낸다면, 잠자는 것을 포함해서 하루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여덟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네이던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부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는 것만큼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월계반의 레사 라이는 학교에서 반시간 더 오래 있고, 등 하교 시간이 각각 한 시간이며, 계절에 따라 배구, 축구 또는 트랙 경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이 비슷하다. 이것은 럭비와 학생회의 부회장으로서의 봉사하는 제사, 산 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엘리스 앤터슨, 실레스타인 영, 무사시와 치히로 하우, 첼시아와 케이시 메식, 그리고 그

지방부에 있는 나머지 다른 청년들과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전세계에서 교회 활동, 가족 시간, 학교, 직업 및 과외 활동으로 곡예를 하는 동안 높게 매달린 곡예 줄에서 균형을 잡는 듯이 보이는 전형적인 후기 성도 십대들이다. 어떻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듯에 빠지지 않고도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건 모두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라고 월계반의 첼시아는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내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첼시아, 네이던, 그리고 홍콩 국제 지방부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은 확고한 복음의 토대 위에 발을 놓을 때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건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네이던은 말한다. “경전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세미나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산 싱(왼쪽), 네이던 영과 그의 여동생들, 실레스타인과 아이린(왼쪽 삼입) 및 그들의 모든 세미나리 친구들(아래)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먼저이다.





영망이죠.”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은 회원이 아니에요.”라고 레사는 말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교회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때때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 또 다른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너무 바빠서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라고 첼시아는 말한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둔다

복음과 함께 이 청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큰 우선 순위는 가족이다. “가족은 중요합니다.”라고 교사인 케이시는 말한다. “저는 항상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전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지 저 혼자만의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라고 레사는 언급한다. “저의 형제 자매들은 너무 자주 밖에 나가 있고,



케이시와 첼시아 메식(왼쪽) 그리고 앨리스 앤더슨과 레사 라이(위)에게 분주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지원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계획한다.



좋은 것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일이 밀어닥칠 때,

그릇된 일들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잇기 쉽습니다. 사탄은 선한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할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삶을 채우게 하여 필수적인 것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틈에 걸려든 적이 있습니까?”

심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쪽.

아빠도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저는 주말에 친구들과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을 저의 가족을 위해 남겨둡니다. 제 친구들은 학교에서 봐요.”라고 청녀, 실레스타인은 말한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우리 모두 아빠의 일정에 맞추려고 합니다.”

각각의 청소년들은 정성 들어 계획을 한다면 주말은 가족 시간을 위해 가장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 “특히 일요일이에요.” 첼시아는 말한다. “일요일은 가족을 위한 날이죠.”

“저는 가족들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네이던은 말한다. 게다가 그의 가족은 항상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가정의 밤은 중요합니다.”

“가정의 밤은 우리가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인 무사시도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에 가족 활동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훌륭한 선택은 축복을 가져다준다

균형은 영적인 성장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둬으로써 오는 축복 중 하나이다.

“복음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을 위해 바람직한 것입니다.”라고 무사시는 말한다. “그것은 간증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그들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사는 방식 때문에 제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전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미나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나갈 기회가 와도 전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네이던은 말한다.

첼시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진짜 이유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바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구세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인생이 다른 활동들로 곡예를 하는 동안 높게 매달린 줄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서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힐라맨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맨서 5:12) ■

큰 도시의 혼잡 속에서 생활하는 젊은 교회 회원들은 바쁘게 지내지만, 그들이 확고한 영적 토대를 쌓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자에 대해 감사함

저는 선지자와 그분의 메시지를 리아호나에서 읽을 수 있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들은 제가 훌륭한 결정을 내려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와 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게 도와 줍니다.

*앨런 더블러스 패뮤거스,
필리핀 나라 지방부 아볼란 지부*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침례를 받기 전에, 선교사들은 저에게 리아호나 몇 부를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기사들 중 하나로 2000년 4월호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세계는 구세주가 있고,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따를 유일하고도 완벽한 본보기가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잡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리하이의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리아호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로세아나 알 산토스,
브라질 비토리아 다 콘퀴스타 스테이크
포코에스 지부*

위안과 힘

리아호나 잡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이 성도들에게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위안과 힘을 가져다주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참으로 오늘날의 이 나침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며 우리가 구세주를 따를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시에라 모크테주마,
멕시코 베니토 후아레스 산 루이스 포토시
스테이크 라스 호야스 와드*

제 삶의 기적

리아호나는 제 삶의 기적입니다. 기사는 제 영혼을 치료하는 유방입니다. 그것은 저의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줍니다. 특히 2003년 10월호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인 “주님의 타이밍”과 2003년 11월호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가 유익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제 삶에서 빛이 된 다른 모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이 작용할 것임을 압니다.

*요하나 레칼데, 파라과이 사우스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스테이크 빌라 엘리아 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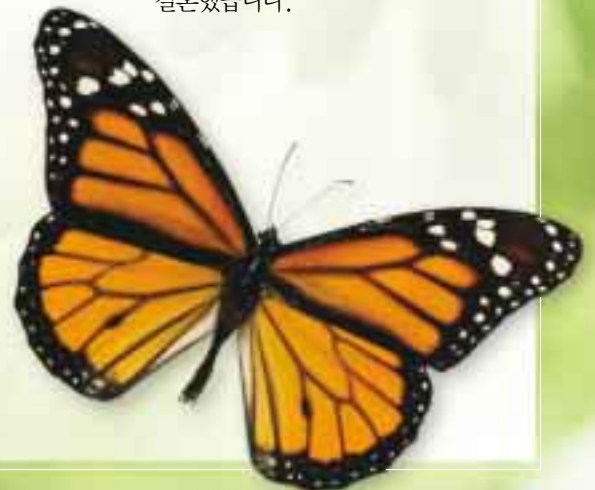
영이 증거했다

저는 오늘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있고 리아호나 잡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호에서 복음 고전 기사로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저는 영을 강하게 느꼈으며 휘트니 장로의 경험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각 자녀들을 위해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가 우리의 하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캐서린 프리실라 테르세로스 비달, 볼리비아
유니베르시다드 코차밤바 스테이크 갈라 갈라 와드*

교리와 성약 도표 정정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16쪽의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에서, 27편, 1830년 8월 아래에 본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뉴얼 나이트와 샬리 나이트는 성찬을 취하고 싶었다.” 1834년에 사망한 샬리 코번은 뉴얼 나이트의 첫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1835년에 리디아 골드웨이트와 결혼했습니다.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몬슨 회장님은 주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저는 오래 전에 큰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몬슨 감독님, 여기는 병원입니다. 감독님 와드의 회원인 캐슬린 맥키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명단에 감독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하자 곧 저는 캐슬린이 살았던 아파트 열쇠를 건네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켜으며,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몬슨 감독님,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카나리아가 세 마리 있습니다. 그 중 두 마리는 황금 빛깔에 완벽한 특색을 갖추어서 아름답습니다. 그 새들을 줄 친구들의 이름을 새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새장에는 “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새를 가장 좋아합니다. 빌리는 약간 왜소해 보이는데다가 잿빛 양 날개 때문에 노란색을 망쳐 놓았습니다. 감독님과 감독님의 가족이 그에게 집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제일 못생겼지만 노래는 가장 잘합니다.”

캐슬린 맥키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접했던 사람들 각자의 삶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캐슬린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잿빛 날개를 지닌 노란색 카나리아 “빌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기꺼이 나르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세상은 잿빛 양 날개를 지닌 노란색 카나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심지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격이 미모나 매력보다 못한 [중중 그렇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조언은 우리의 귀에 메아리 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주님은 이 곳에서 그분을 섬기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과 모든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원합니다. ●

“Yellow Canaries with Gray on Their Wing”, Ensign, 1987년 8월, 2~5쪽.



“우리는 _____ 하나님과 그의
_____와 _____을
_____.”(신앙개조 제1조)

“또 _____의 _____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_____을 알게
되리라.” (모로나이서 10:5)

“내가 _____구하겠으니 그가
_____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_____하리니”
(요한복음 14:16)

“이는 많은 _____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_____의 _____으로 한 가지
_____가 _____.”(교리와 성약 46:11)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_____임하여
네 _____에 거할 _____말미암아
네 _____과 네 _____에 말하리라.”
(교리와 성약 8: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_____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_____참으로
_____롭게 행하도록, _____건도록
_____판단하도록 _____하는 그 영을
_____하라. 이것이
_____이니라.” (교리와 성약
11:12)

“_____첫째 되는 _____와
_____은 첫째, _____를
믿는 _____, 둘째, _____, 셋째, 죄
_____을 위한 _____로써의
_____, 넷째, _____를
_____위한 _____.”
(신앙개조 제4조)

주: 만약 잡지에 있는 쪽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다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그것을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 자료를
찾으려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
자료를 찾으려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성신의 은사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사 10:5)

마가렛 리퍼스



여러분이 여덟 살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죠. 침례식 날 또는 그 다음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의식에서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성신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성신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교리와 성약 8:2) 말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니파이후서 32:5) 보여 줄 영적 존재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돕고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제3니파이 28:11 참조) 성신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와 성찬을 취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신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약속해 주십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여러분은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1899~1994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면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도의 벗, 1989년 5월호, 102쪽)

참으로,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신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훌륭한 선물입니다.

성신의 은사

성신의 은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선물 카드를 사용한다. 상자나 가방을 선물처럼 보이도록 꾸민다. 친구들 4쪽을 떼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선물 카드를 오려낸 다음 상자나 가방 안에 그것들을 넣는다. 이번 주 동안 매일 카드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경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운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복음 그림 패킷 602(성신의 은사)를 포함한 상자나 선물을 가방 안에 넣는다. 길고 가느다란 종이 조각에 다음의 실마리를 적는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해요”, “나는 진리를 가르쳐요”, “나는 인도자예요”, “나는 위안을 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나는 신회의 일원이예요.” 실마리를 용기에 넣는다. 여러분이 용기를 돌릴 때 피아노 반주자가 연주를 하게 한다. 음악이 멈추면 한 어린이에게 실마리를 읽고 상자 속의 선물을 알아맞히게 한다. 여러 개의 실마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속한다. 어린이들이 성신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실마리를 보여 주고 복습한다. 선물 상자를 열어서 그림을 보여 주고 이렇게 질문한다.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단계는 무엇일까요?” 신앙개조 제4조를 복습한다.

2. 우리가 맺는 성약을 설명하는 성찬 기도(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의 일부를 칠판에 적는다. (1)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2) “항상 그를 기억하고”, (3)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한 줄씩 암기하도록 한다. 각 그룹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암송하도록 손가락을 하나, 둘, 또는 세 개를 세워 신호한다. 암송을 몇 번 한 후, 맡은 부분을 바꾼다. 그런 다음 칠판의 구절들을 지우기 시작한다. 모든 부분을 익힐 때까지 반복한다. 우리가 성약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 명의 성인에게 성신의 영향력에 대한 경전이나 개인의 기록을 말할 준비를 하도록 미리 권한다. 그 발표자를 교실 사방에서 있게 한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성신에 대해 배우도록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한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덴디로부터 얻은 교훈

해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암소 보시를 트럭에 싣고 협곡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농장의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가족이 보시를 이동시키기 전에 보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
보시를 묶어 두지 않아서
보시가 없어졌어요!
겨우 일이 분 동안만 집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걱정하지 말거라.
보시는 협곡으로 갔을 게다.

맥케이 장로와 로렌스는 협곡 어귀에서 보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보시를 기둥에 묶어 두었던 거죠.

보시는 제때에 협곡에 있는 농장으로 갔답니다. 그 해 이후로 맥케이 장로는 봄이면 항상 보시를 풀어주었죠. 보시가 곧장 농장으로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보시가 혼자서 협곡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보시의 고삐에 표시를 해 놓자.

“풀밭으로 가고 있는
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맥케이 장로에게는 덴디라는 말도 한 마리 있었는데 보시만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덴디는 빗장을 열거나 목에 묶인 줄을 씹어서 어떤 우리나라 축사에서도 달아날 수 있었죠.

덴디가 또 도망갔군.

덴디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차에 치였죠. 죽지는 않았지만 도망가는 나쁜 버릇은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도망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겠지, 덴디!

어느 날 덴디가 또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덴디와 다른 말 한 마리가 배회하다가 곡식 저장소로 사용했던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서는 쥐 미끼로 둔 독이 든 귀리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맥케이 장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잃게 되어서 매우 슬펐답니다. 그렇지만 종종 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가르치기 위해 덴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My Father, David O. McKay(1989년), 57~58, 63쪽에서 발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한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사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글쓰이의 와드에 속한 어느 가족의 경험으로부터

초 등회 개회를 하는 동안 초등회 회장인 애슈본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들어 올렸다.
더스틴은 그 예수님의 그림을 좋아했다. 그의
가족에게도 그와 똑같은 그림이 집에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인 피아노 위에 있었다.

그 그림은 하얀색 마분지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테두리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게
하고 싶어요.”라고 애슈본 자매님이 말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둘러싸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각 교실로 가져가서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여기에
이름을 써 넣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더스틴은 손으로 글씨를 쓰느라 애를 썼다. 3학년인 그는
필기체 쓰기를 배우고 있지만 학습 장애로 인해 그의 발전은
더디었다. 필기체로 써야 할 때마다 그의 손이 흔들렸다. 그는
테두리에 이름을 써 넣자는 생각에 불안했다.

초등회 회장단은 그 그림을 더스틴의 교실에 가져왔다. 그의
교사인 비커 자매님은 그 테두리를 어린이들에게 건네주었다.
어린이는 거기에 이름을 써 넣었다. 더스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머뭇거렸다.

“저는 글을 잘 못써요.” 그는 비커 자매님에게 속삭였다.

“필기체로 쓰는 것이 불편하면 정자로 써도 돼.”라고 그녀가
말했다.

더스틴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정자체
글씨가 필기체 글씨보다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너는 예수님이 네 글씨가 얼마나 잘 써졌는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니?”라고 비커 자매님이 조용히 물었다.

더스틴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의 선생님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어. 너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

더스틴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내가 여기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 그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셔. 그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그녀는 펜을 더스틴에게
건네주었다.

더스틴은 비커 자매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최고로 잘
써서 그 테두리를 선생님에게 돌려드렸다.

그 다음주에 애슈본 자매님은 테두리와 액자 틀 속에 있는
그 그림을 모든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바로 여기에 걸어 둘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교실의 정면 벽을 가리켰다. “매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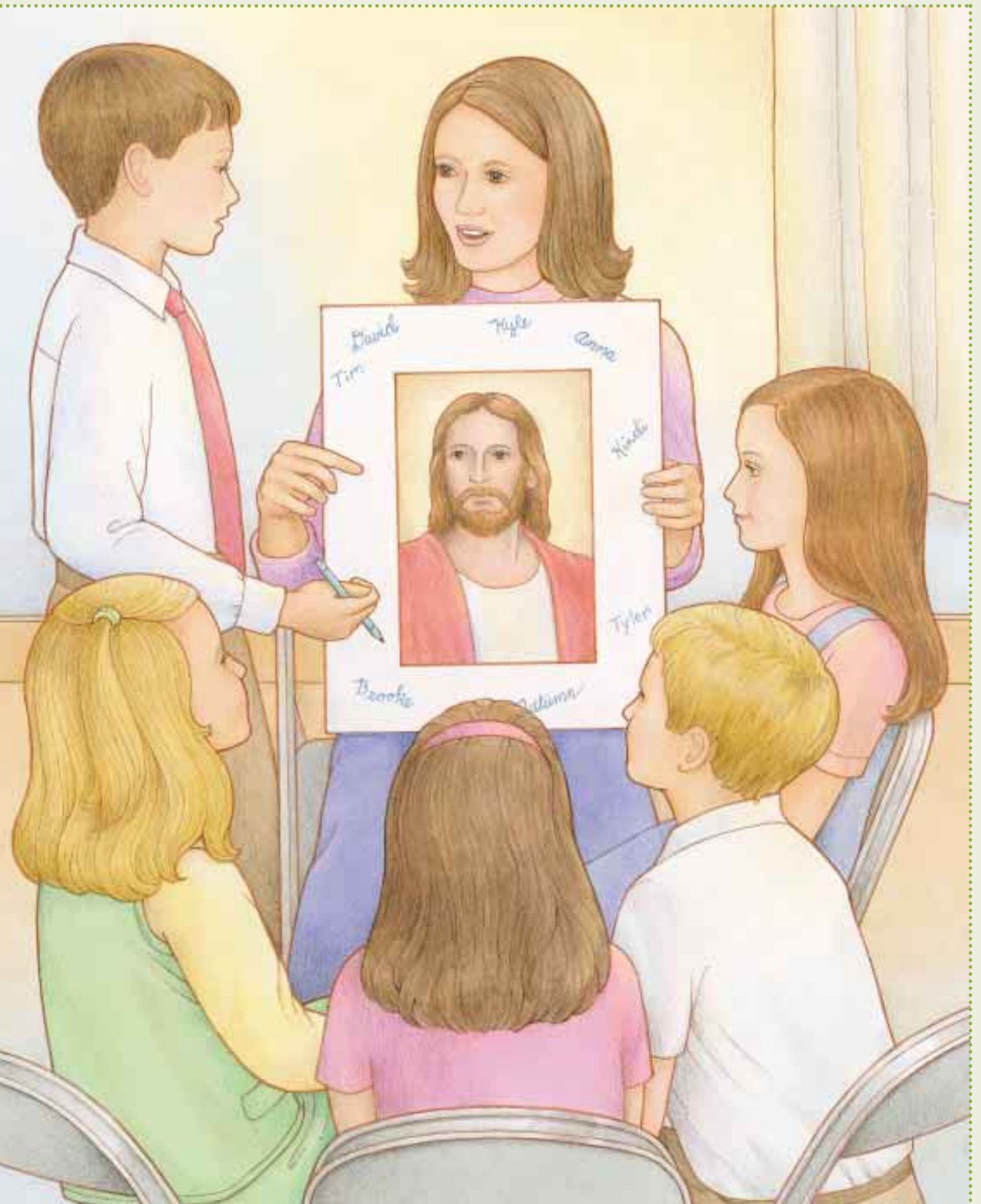
더스틴은 사랑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따사로운 빛을 느꼈다. ●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는 콜로라도 러브랜드 스테이크 빅 톱프스 와드의 회원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심이사도 정원회의 엘튼 페리 장로,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4쪽



침례와 확인을 위한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때, 미대륙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수많은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분은 니파이와 다른 11명의 사람들에게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침례를 주는 올바른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후에 구세주께서는 이 사람들 각자에게 안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제3니파이 18:36~37 참조, 또한 제3니파이

8:5~11, 20~23; 11:8~11, 18, 21~26; 12:1; 모로나이서 2:1~3 참조)

구세주께서 각 제자에게 성신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아래의 그림을 색칠합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니파이 백성인 제자들에게 침례와 확인을 하기 위한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물 탐구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심 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글자를 넣은
위의 사진들과 아래에 나오는
실마리들을 연결해 보세요.

- ___ 1. 밸라드 장로님은 성장기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이었고 그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 ___ 2. 그가 이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그는 두 명의 선교부 회장님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 ___ 3. 그는 무도회에서 아내 바바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바바라가 나와 결혼할 것을 승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판매 실적이었다고 그녀에게 농담을 합니다.”라고 밸라드 장로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결혼했습니다.
- ___ 4. 1974년에 그는 이 나라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 ___ 5. 교회의 이 회장님은 밸라드 장로님의 외증조부의 동생이었습니다.
- ___ 6.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의 아들 클라크가 어렸을 때, 밸라드 장로님은 광산을 방문하기 위해 그를 네바다 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이것을

- ___ 7.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직업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시작했던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 ___ 8. 사업가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절약하고 빚을 멀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너무 몰두해서 교회 부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말합니다.
- ___ 9. 그는 교회의 이 회원들을 위해 “표준을 높이라”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지시 하에 일해 왔습니다.
- ___ 10.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묻자, 그는 이 사건이 “모든 남자의 성공에 대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

캐서린 루백, “Elder M. Russell Ballard: True to the Faith”, *Ensign*, 1986년 3월, 6~11쪽; “Elder M. Russell Ballard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Ensign*, 1985년 11월, 99~100쪽; “Elder Melvin Russell Ballard, Jr., of the First Quorum of the Seventy”, *Ensign*, 1976년 5월, 134~135쪽에서 발췌

오 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에베소서 4:32)

루어라이 노우

글쓴이의 가족의 경험으로부터

오 드리는 몸을 뒤틀었다. 오드리에게는 성찬식이 결코 끝나지 않을 듯이 보였다. 의자 뒤쪽으로 몸을 비틀어 돌려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가 오드리를 앞으로 돌려 앉혔다. 오드리는 언니 레베카를 바라보았다. 레베카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쉬!” 하고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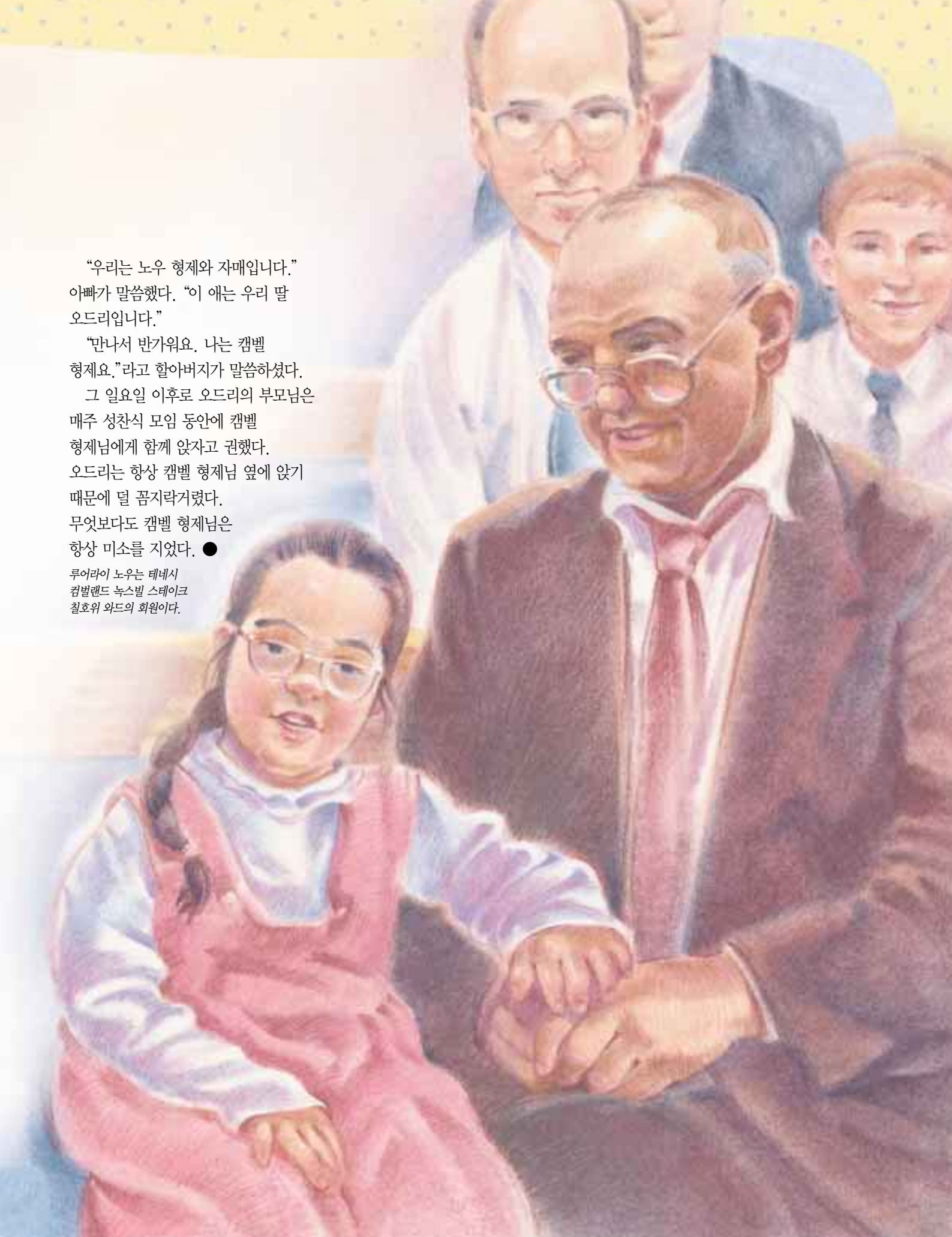
오드리는 얼굴을 찡그렸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긴 좌석 줄을 내려다보았다. 한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보였다. 매끄럽고 윤이 났다. 오드리는 무릎 위에 고요히 올려져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연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할아버지의 입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오드리는 할아버지의 눈이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듣고 싶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오드리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살며시 그리고 경건하게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갔다. 엄마와 아빠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다음에 그녀는 할아버지의 옆자리로 기어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아래를 보고 계셨다. 오드리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그의 주름진 손가락을 톡톡 쳤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펴서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오드리는 할아버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눌렀다. “행복하세요.”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오드리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할아버지가 오드리를 보고 웃으며 앙크를 했다.

폐회 찬송을 부르는 동안, 오드리는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오드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오드리의 엄마와 아빠가 와서 그 할아버지와 악수를 했다.



“우리는 노우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빠가 말씀했다. “이 애는 우리 딸
오드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캄벨
형제요.”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일요일 이후로 오드리의 부모님은
매주 성찬식 모임 동안에 캄벨
형제님에게 함께 앉자고 권했다.
오드리는 항상 캄벨 형제님 옆에 앉기
때문에 덜 꿈지락거렸다.
무엇보다도 캄벨 형제님은
항상 미소를 지었다. ●

*루어라이 노우는 테네시
캠벨랜드 녹스빌 스테이크
칠호위 와드의 회원이다.*

한스 니에토 에콰도르 과야킬

마빈 케이 가드너
교회 잡지

에콰도르 과야킬에 살고 있는 아홉 살 난 소년 한스 에두아르도 니에토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였다.

한스의 가족은 한스와 그의 어머니가 전부이다. 한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정부로 일했던 집의 가족은 후기 성도였다. 그들은 축복을 주기 위해 아기를 교회로 데려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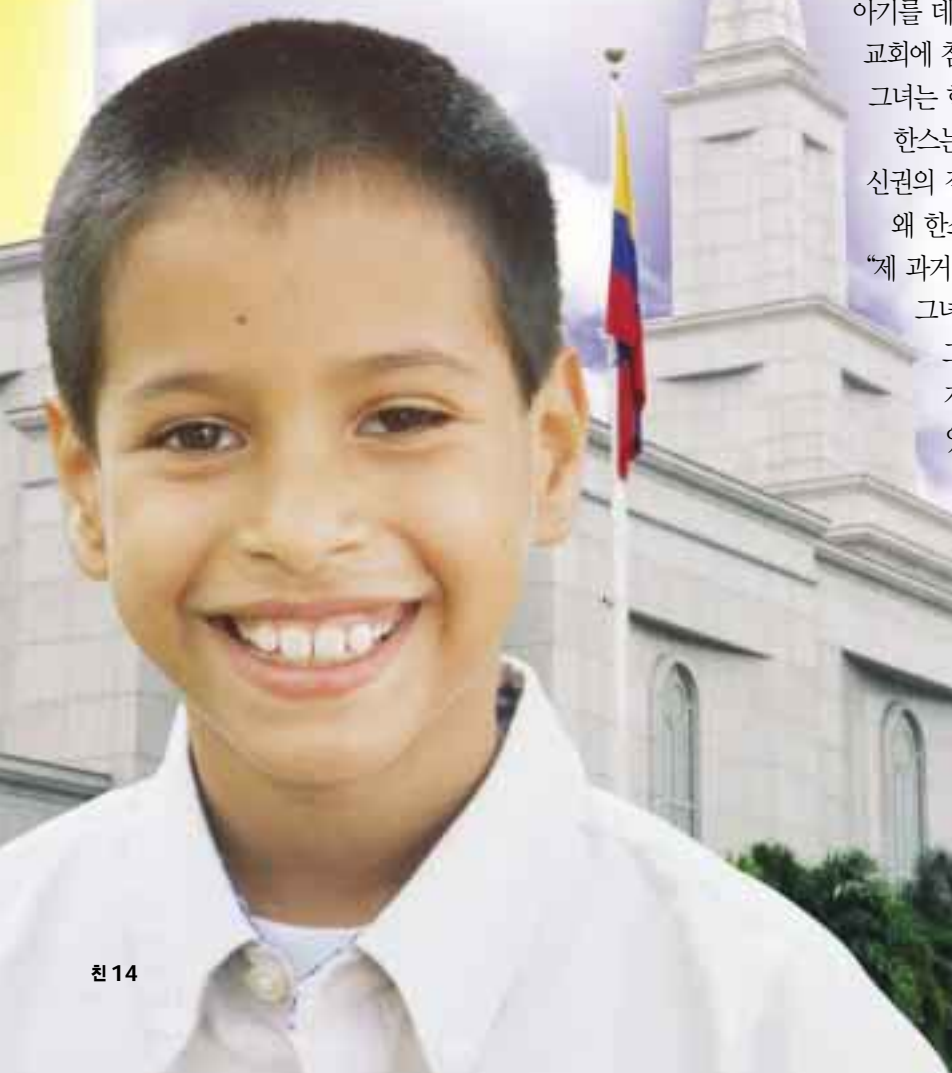
한스의 어머니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축복을 위해 자신의 아기를 데려가는 것은 허락했다. 한스는 그 때 이후로 교회에 참석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살든지, 그녀는 한스를 교회로 데려다 줄 회원들을 찾았다.

한스는 여덟 살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아론 신권의 집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왜 한스의 어머니는 그와 같이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 “제 과거가 무척 불행하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그분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한스는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빛이었습니다.”

한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빛을 밝게 빛낸다.

한스가 여섯 살이었을 때, 그는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 사고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의 엄마는 한스를 에콰도르에 있는 자신의 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스의 팔이 부러졌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났더라면 한스는 교회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 때에 한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올란다 니에토가 침례를 받았다. 그 때 이후로 그녀의 간증은 계속 자라서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한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복음의 빛으로 데려온 선교사였다.

그녀는 한스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교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매일 아침 한스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경전을 30분 동안 읽는 것입니다.”라고 니에토 자매는 말한다. “한스는 밤에도 매일 30분 동안 경전을 읽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한스가 큰소리로 읽는 것을 듣는다. 그는 또한 리아호나의 친구들도 읽으며 제일회장단의 가장 최근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있다.

한스는 와드에서 리아호나 잡지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부름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돕는다. 감독님이 우편함에서 잡지를 받으면 한스는 엄마가 그것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도록 돕는다. “그들이 교회에 없으면 저는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리아호나를 줍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라고 한스는 말한다.

학교 친구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한스는 또다른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한다. 그는 축구와 농구를 하고 달리기도 잘한다. 그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할 때, 제 몸을 친구들에게 줘요.” 몇 명의 친구들과 사촌들이 그와 함께 교회 활동에 왔다.

한스는 사립 학교에 다닌다. 그의 수업료 절반은 우수한 성적과 훌륭한 품행으로 받는 장학금으로 지불한다. 나머지 절반은 그의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 지불한다.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스는 장래에 비행기 조종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공중을 날고 싶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열두 살이 되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위해 성전에 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일부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



한스는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뜰을 방문할 때 갖는 느낌을 매우 좋아한다. (반대편 쪽) 그는 엄마와 리아호나를 읽고(위) 축구장에서 훌륭한 선수로서의 모범을 보인다.(아래) 그의 엄마는 한스가 “자신을 진리로 인도해주는 빛”이었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한스는 말한다.

회원 선교사로서의 그의 모든 경험과 함께, 한스는 언젠가 전임 선교사로서 그의 빛이 빛나기를 바란다. “저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동전이 생길 때마다 선교 사업을 위해 그것을 저축합니다.” 그는 또한 초등학교에 감으로써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노래와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한다.

“저는 제 마음과 정신과 영혼으로 간증을 느껴요.”라고 한스는 말한다. 그는 물몬경을 무척 좋아하고 신앙개조와 다른 많은 성구를 외웠다. “때때로 저는 그것들을 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 주십니다.” 한스는 최근에 조셉 스미스에게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하도록 영감을 준 야고보서 1장 5~6절을 암기했다. “저는 성구를 외워서 항상 마음속에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문제가 생길 때요.”라고 그는 말한다.

에콰도르 알보라다 스테이크 타르키 와드의 에두아르도 이 마르티요 감독님은 한스가 성찬식에서 처음으로 간증했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한스가 성구를 완벽하게 인용했기



에두아르도 이 마르티요 감독님은 한스가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한스는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춘다.

때문에 경전 구절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한스가 성구를 암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스 니에토는 계속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추고 있다. ●



지구상의 에콰도르 지도: MOUNTAIN HIGH MAPS



친구들



모임	일시	장소
귀환 선교사 모임	2005년 7월 27~28일(수, 목)	각 선교 지역
전국 귀환 선교사 대회	2005년 7월 30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문화의 밤	2005년 7월 30일(토) 오후 6시~8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한국 지역 대회	2005년 7월 31일(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전국 청년 대회	2005년 8월 3일~6일(수~토)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아름다운 사람들

잠들어 있는 컴퓨터는 나에게 오라!!!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궁핍한 사람 도왔나?” 오늘도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박인규 형제는 약해지려 하는 마음을 다잡고 위안과 힘을 얻기 위해 찬송을 부릅니다. 그는 1977년 가을 개천에서 떨어져 경추 손상을 입은 후 지체 1급 장애인으로 하루하루를 덧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전화 번호부를 뒤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게 되었으며 선교사님의 편안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전에는 목공소를 운영하며 목수로서 생활했으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마다 대전의 이현주 형제가 공주로 달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덕분에 이제 박형제는 컴퓨터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충남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컴퓨터를 수거, 보수하여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라고 해도 낮은 가격이 아닌 컴퓨터를 구

하는 일에 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박 형제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모사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 놓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박 형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족이 움직이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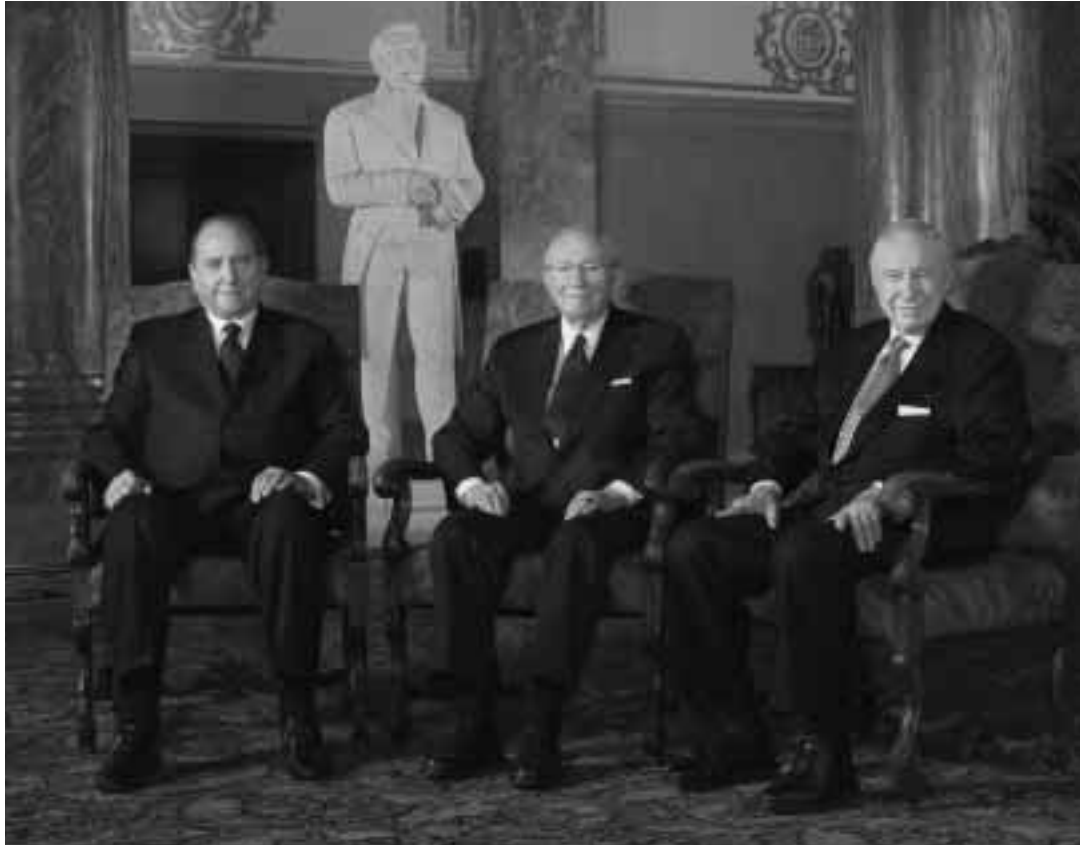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 여성 대회(2005년 6월 25일)
- 인천 스테이크
권영도 형제의 '인슐린 분비세포' 개발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지부 회장: 안재석(전임: 안종원)
-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감독: 오세운(전임: 이호정)



고든 비 힝클리 회장(가운데),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왼쪽), 그리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10년간 제일회장단으로 함께 봉사했다.

취임 10주년을 축하하는 제일회장단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 십 년이 된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인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수많은 도전과 성취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며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을 표현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15대 회장이 된 이래 몇

가지 중요한 일들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구 교육 기금 설립의 공표와 성공, 컨퍼런스 센터의 건설, 지난 10년간 5천만 권 이상의 몰몬경 배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기금의 기부 등을 언급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 3백만 9백 10만에서 1천 2백만으로 회원 증가
- 87 헌납 및 재헌납, 또는 발표된 성전
- 19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몰몬경을 번역한 추가 언어로 총 106개 언어에 이름

- 641백만 111개국에서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05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제공된 미화
- 98,763 95개국의 사람들에게 기증한 휠체어
- 40 정수 시스템을 설치한 나라
- 1천 6백만 킬로미터 힝클리 회장은 70개국 이상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했다



헝클리 회장이 교회의 회장이 된 이래 87개의 성전이 헌납 및 재헌납, 또는 발표되었다.

헝클리 회장은 1995년 이후로 자신이 했던 여행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70개국 이상을 여행했으며 1백 60

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는 기록을 세웠다. “여행은 무척 피곤하고 지루하지만 신

앙을 증진시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힘과 역량,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볼 때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헝클리 회장은 함께 봉사하기에 더 훌륭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두 보좌에 대한 신뢰를 표했으며, 그들이 지혜롭고, 신앙이 깊으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몬슨 회장과 파우스트 회장은 헝클리 회장이 하는 일에 대해 감탄의 말을 했다.

“회장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선견을 지니신 분입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했다. “그분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 그분에게 오는 예언적인 영향력으로 ...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헝클리 회장은 자신과 자신의 두 보좌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며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
Deseret Morning News 기사 제공

제일회장단 연대표

1995년 3월 12일

제일회장단 성별.

1995년 9월 23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

1996년 2월 28일

국제 지역(미국 이외의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미국의 교회 회원 수를 초과.

1996년 4월 6일

헝클리 회장이 컨퍼런스 센터 건축 계획 발표.

1996년 5월 27일

헝클리 회장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교회의 첫 회장이 됨.

1996년 11월 2일

제일회장단이 후기 성도 자선회 설립 발표.

1997년 4월 5일

두 해 앞서 만든 비상근 지역 지도자 지위인 지역 관리 역원 부름을 위해 칠십인 정원회 수 추가.

1997년 10월 4일

헝클리 회장이 소규모 성전

교회, 현재 미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큼;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성장

전 세계적인 성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 내의 교회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미국과 캐나다 교회 연감)에서 두 나라가 제공하는 숫자에 의하면, 2004년에 보고된 5백 5십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미국에서 교회는 현재 네 번째로 가장 큰 종파이다. 일년 전에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종교 단체였던 교회는 연감에 따르면, 2004년 동안 미국에서 1.71퍼센트 성장률을 나타내며

“놀랄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교회의 성장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4월 연차 대회에서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의 회원수가 2004년 말에 거의 1천 2백 3십만 명에 달했다. 2004년 동안 240,000 이상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으며, 기록상의 자녀들은 거의 100,000명으로 증가했다.

회원 수의 증가로 2004년 동안 41개의 새 스테이크, 1개의 새 선교부, 2개의 새 지방부, 433개의 새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었다.

1995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은 이래 교회 회원이 삼백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아 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주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능자의 사업에서 새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사업은 성장하고 강화되어 지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 아호나, 2004년 5월, 83쪽) ■

영어 찬송가, 출판 20년 주년; 21개 언어로 출판됨

채드 패리스, 교회 잡지

에머 스미스가 최초로 찬송가를 수집하여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성스러운 찬송가 모음집)을 출판한 지 170년을 맞아 전세계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찬송가 1985년 영문판

20주년을 현재 기념하고 있다.

341곡의 찬송가가 담겨 있는 1985년 영어판은 다른 언어로 인쇄될 새 찬송가 책을 위한 표준이 될 것으로 알고만 들어졌다.

1985년 찬송가 책에 제일회장단 머리 글은 이렇게 나와 있다. “모든 찬송가는

오늘날 전세계 교회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선정되었습니다.”(찬송가, ix)

1985년판에 있는 수많은 찬송가는 21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추가 번역이 계속되고 있다.

찬송가가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그 모음집에는 35곡의 찬송가

<p>건축 계획 발표.</p> <p>1997년 11월 전세계의 교회 회원수가 1000만에 이릅니다.</p> <p>2000년 1월 1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구세주에 대한</p>	<p>사도들의 증언을 선언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발표.</p> <p>2000년 4월 1~2일 21,000 석 규모의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첫 연차 대회 개최.</p>	<p>2001년 3월 31일 힝클리 회장이 영구 교육 기금 설립 발표.</p> <p>2002년 6월 27일 힝클리 회장이 재건축한 일리노이 나부 성전 헌납.</p>	<p>2003년 1월 11일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이 56개 언어로 97 퍼센트 이상의 교회 신권 지도자들에게 위성으로 방송.</p>
---	--	---	--

와 10곡의 어린이 노래가 들어 있었다. 한 언어 그룹 내의 회원들이 충분히 증가한 후에, 여러 언어에서 표준이 되는 노래 107곡, 권장하는 추가 선택 찬송가 50곡 및 각 언어별 위원회가 선정한 찬송가 50곡이 들어 있는 새로운 찬송가 책이 번역되었다.

때때로 음악에 경험이 있는 번역가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본부 음악 위원회의

위원장 마이클 무디는 각 언어로 표현되는 찬송가의 일관성은 바로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우리가 단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전세계에서 똑같은 메시지와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찬송가 책을 위한 찬송가를 선정한 단

체인 찬송가 책 집행 위원회는 19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음악가, 역사가, 음악 편집가 및 가사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찬송가 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여러 개의 소위원회와 조사 그룹이 있었다

선정 위원회는 피드백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적절하게 선정했으며,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

수년 동안 장단 맞추어: 영어 LDS 찬송가책 표본

1835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 에머 스미스는 이 최초의 교회 찬송가 책에 90곡의 찬송가 가사를 포함시켰다.

1840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Europe. 이 찬송가 25곡의 초판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브리검 영, 팔리 피 프렛과 존 테일러에 의해 출판되었다.

1889 *Latter-day Saints' Psalmsody.* 이것은 가사가 있는 악보를 포함한 최초의 LDS 찬송가 대모음집이었다.

1908 *Songs of Zion.* 합창단을 중심으로 한 찬송가 *Latter-day Saints' Psalmsody*와는 대조로 *Songs of Zion*에는 약 100곡의 찬송가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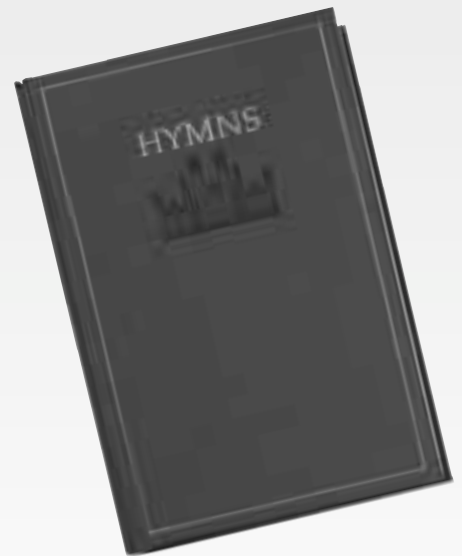
1909 *Deseret Sunday School Songs.* 이 책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Deseret Sunday School Songs*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찬송가 책이 되었다.

1927 *Latter-day Saint Hymns.* 이

찬송가는 *Latter-day Saints' Psalmsody*, *Songs of Zion*과 다른 선곡들 중에서 최상의 곡을 통합한 것으로 *Deseret Sunday School Songs*와 함께 사용되었다.

1948 *Hymns,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 책은 네 가지 일반적인 종별, 즉 회중, 합창단, 남성용, 여성용으로 분류했다.

1985 *Hymn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 책은 모든 후기 성도 세대로부터 나온 다양한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21개의 언어로 된 찬송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



1985년 판 찬송가 책은 20년 전에 출판된 이래 21개의 언어로 된 찬송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십 년 전 무디 형제는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린 선교부장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모임 동안, 선교사 훈련원에서 온 선교사들이 “주 섬기라”(찬송가 145장)를 부르며 행진해 들어왔다.

건물 안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비록 선정 과정이 지났지만 위원회는 “그 찬송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그 찬송가는 1985년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포함되었다.

1985년판 찬송가 책에 에머 스미스의 최초 찬송가 책에 담겨 있던 26곡의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1985년판에 있는 92곡의 찬송가는 새로운 곡이었다. 이 찬송가들 중에 44곡이 후기 성도가 작곡한 새로운 곡이었다.

찬송가에 더하여, 1985년판은 또한 음악 지휘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찬송가를 합창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교회 모임에 올바른 찬송가를 선택하는 데 조언을 주는 “찬송가 책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가 기억할 만한 찬송가를 선정하고 있었을 때, 음악적인 재능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이 될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 애를 썼다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1985년판의 제일회장단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을 우리의 회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암송하고 생각해 보며, 음미하고 노래 부르며, 그 영적인 양분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 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찬송가, x) ■

용하지만 21,333 석의 컨퍼런스 센터 청중석(대강당)은 지금까지 지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극장식 청중석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은 멕시코에 있는 국립 극장으로 약 11,000 석이다. 그러나 컨퍼런스 센터를 유일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보잉 747 비행기가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큰 청중석은 24만 입방미터에 이른다. 태버내클의 크기는 4만2천 입방 미터이다. 유명한 런던 로열 앨버트홀은 컨퍼런스 센터 크기의 3분의 1이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9만 5천 입방미터이다.

게다가 청중석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좌석에 천을 씌웠으며, 천장과 벽은 반향을 줄이기 위해 방음 처리를 해서 그 건물의 원래 목적인 말씀을 듣기에는 이상적이다. 그러나, 합창단과 반주자에게는 음향 효과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음향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 지휘자인 크레이그 제섭은 청중석 안에 움직이는 공기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야외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태버내클과 같은 대합창단조차도 몇 가지 증폭 — 각 공연에 의존하는 연속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작용 — 없이는 그 공간을 적절하게 채울 수 없다. 증폭은 청중이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창단원들 각자가 서로의 노래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창단 자리에도 확성기가 놓여 있다.

대회장의 규모상 합창단 없이 오르간 독주 시에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하며 합창단 반주 시에도 합창단

태버내클 합창단, 독특한 컨퍼런스 센터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지진에 대비한 구조 개선과 합창단 시설 증축을 위한 템플 스퀘어의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수리가 끝나는 2006년 후반까지,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컨퍼런스 센터로 이전해야 했다.

수많은 회원들이 합창단 공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2000년 이래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연차 대회 동안이다. 그래서 회원들은 지난 5년에 걸쳐 합창단이 그곳에서 공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매년 연차 대회와 약간의 다른 공연을 제외하고, 매주 방송되는 Music

and the Spoken Word(음악과 진리의 말씀)를 포함하여 합창단의 대다수 공연은 태버내클에서 계속 행해져 왔다. 1867년에 건물이 헌납된 이래 합창단의 고향이 되어온 그 건물의 개축 결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전과 관련된 계획과 이행의 어려움 — 합창단 도서실과 옷장은 템플 스퀘어의 지하에 남겨 두고 — 외에도 합창단과 오르간 연주자는 음향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건물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응해야 했다.

태버내클의 좌석은 약 5,000명을 수

컨퍼런스 센터의 독특한 오르간

건물의 크기 외에,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에게 있어서 태버나클과 컨퍼런스 센터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오르간에 있다.

태버나클 오르간은 그것의 역사, 음향, 크기로 유명하며 11,600 개의 파이프와 206 개의 배열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 15대 중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다.

컨퍼런스 센터의 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에 속하지는 않지만(7,667 개 파이프 130배열), 여전히 위풍 당당한 악기로 손꼽힌다. 거대한 컨퍼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것이다. 다섯 개의 건반 연주대는 흔하지 않은 것이다.

“5줄의 건반으로 만들어진 오르간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자인 클레이 크리스천슨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이 오르간만큼 베이스 부분을 웅장한 소리가 나도록 만든 오르간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악기입니다.”

오르간을 만드는 것은 개념화로부터 청중석에서 각 파이프의 최종 “유성화”(또는 음향 테스트)까지 7년간의 프로젝트였다. 수천 개의 파이프 설치만으로도 2000년 4월에 그 건물에서 열린 첫 연차 대회 바로 후부터 3년이 경과했으며, 하나는 2003년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대회 동안에 합창단은 전자 오르간으로 반주 했다.

그 첫 대회 동안 설치된 파이프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라고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자 존 롱허스트는 말한다. “그것은 7,700개 중 약 170개였습니다.”

오르간 제작자인 Schoenstein & Co.는 몇 개의 오르간 부품을 오하이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캘리포니아, 독일 및 영국까지 세계 전역에 있는 회사로부터 구했다.

“오르간 제작자는 일반 시공 업자와 같습니다.”라고 롱허스트 형제는 말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작하고



존 롱허스트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반주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하청을 줍니다. 컨퍼런스 센터 프로젝트의 규모상 더 많은 회사들이 특수성보다는 최종 기한을 맞추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간은 그 정도의 일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감탄합니다.”라고 크리스천슨 형제는 말한다. “그 소리를 들듣고나면 또 한번 감탄합니다.” ■



오르간의 파이프는 모든 모양과 크기에 있어서 길이가 44밀리미터에서 12미터에 이른다.



컨퍼런스 센터의 오르간은 7,667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청중이 볼 수 있는 170개의 파이프 뒤에 숨어 있다.

스 센터의 청중석을 채우기 위해 그 오르간의 많은 파이프는 오르간의 키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보통보다 더 높은, 총 38마력의 송풍기 여섯 대로 제공되는 풍압을 사용한다. 그것은 땅이 흔들리는 64피트 범위로 낮아져 GGGGG#(개략적으로 그랜드 피아노보다 한 옥타브 낮음)에 도달하게 하는 두 개의 파이프 선택을 가지고 있는

의 소리를 잘 살려 줄 수 있는 오르간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오르간 연주 기법은 동일하지만 각 오르간마다 소리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연주대 배치도 다르다.

“각 오르간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태버내클 오르간 연주자 존 롱허스트는 말한다. “각각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는 각 오르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컨퍼런스 센터 오르간에 관한 관련 기사 참조)

그러나, 제섭 형제는 합창단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음향상의 문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공연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일년에 겨우 두세 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시간

을 갖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합창단에게는 그 건물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섭 형제의 말에 의하면 관련된 사람들은 컨퍼런스 센터가 “참으로 영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컨퍼런스 센터는 1867년의 태버내클만큼이나 2000년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차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수만 명의 회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실제로 참석한 가운데 앉아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그 건물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를 갖추어 “복음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지적한다.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조차 컨퍼런스 센터와 같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미 헌납되었거나 10월까지 헌납 될 네 개의 성전

3월에 제일회장단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대륙에서 네 개의 성전을 위한 일반 공개일과 헌납일을 발표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이미 헌납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10월 연차 대회 이전에 헌납될 것이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의 일반 공개가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있었다. 일반 공개에 뒤이어 성전은 5월 22일 일요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헌납되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은 텍사스에서 네 번째로 운영하는 성전이며 성전 지역 경계 내에 거주하는 대략 50,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이용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의 일반 공개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었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가 8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으로 헌납된다. 성전 의식은 8월 8일부터 시작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과 가나 아

크라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성전이 된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의 일반 공개는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있게 될 예정이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는 8월 27일 토요일에 열린다. 성전 헌납은 8월 28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날인 8월 29일부터 성전 의식이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번째로 헌납되는 성전이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

2년여 전, 2003년에 화재로 소실된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9월 4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으로 재 헌납될 예정이다.

2003년 7월 수리를 하는 동안 화재로 내부가 손상된 성전은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는 헌납 전날인 9월 3일에 열린다. 9월 5일에 성전 의식이 시작된다. ■

정정: 교리와 성약 도표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16쪽의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에서, 27편. 1830년 8월 아래에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뉴얼 나이트와 샬리 나이트는 성찬을 취하고 싶었다.” 1834년에 사망한 샬리 코번은 뉴얼 나이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1835년에 리디아 골드웨이트와 결혼했습니다. ■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5년 리아

2005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호나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성신의 은사”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이 신앙개조 제1조를 암기하도록 한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 그림 패킷 403(첫번째 시현)과 602(성신의 은사)를 사용한다. 성신은 영적 존재이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성신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간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최근의 개종자, 선교사, 또는 와드나 지부 회원을 초대하여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성신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복음 그림 패킷이나 초등회 그림 패킷에서 어린이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을 복사한다. 이를테면, 복음 그림 패킷 604(성찬 전 달), 605(기도하는 남자 아이), 또는 616(가족과 함께). 간증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그림을 선택한다. 각 그림의 뒷면에 한 글자를 적어 칠판에 붙이고 간증을 읽는다. 한 어린이를 나오게 해서 한 글자를 뒤집고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나오는 것을 행할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이 활동이 그들의 간증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고, 노래나 찬송가로 그 원리를 강조한다. 모든 그림이 보여 질 때까지 계속한다.

2.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에 따르라고 말할 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손을 머리에 얹어요. 서서 천장에 닿도록 손을 뻗어요. 앉아서 팔짱을 끼세요.” 성신도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며, 우리는 종종 느낌으로 성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설명한다. 물문서 8장 1~7절을 살펴보고 모로나이에 대해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한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은사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금판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 중 몇 가지는 우리에게 영의 축복에 대해 가르쳐 준다. 칠판이나 개인적으로 만든 표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짝 맞추기 게임을 하게 한다. 다른 면에 여러 가지 영의 은사를 뒤섞어 표를 만든다.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찾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신의 은사와 짝을 맞추게 한다. (1) 모로나이서 10:9~10 —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친다. (2) 모로나이서 10:11 — 신앙과 병 고침. (3) 모로나이서 10:12 — 큰 기적을 행한다. (4) 모로나이서 10:13

— 예언. (5) 모로나이서 10:14 — 천사를 봄. (6) 모로나이서 10:15~16 — 방언과 통변. 신앙개조 제7조를 암송한다. 여러분 자신의 실례를 들어 이러한 성신의 은사를 설명하거나, 또는 다음을 사용한다. (1) 최근 연차 대회 연사의 간증을 이야기한다. (2) 초등회 5 교사 교재, 제19과, 보충 활동 4번에 나오는 이야기. (3)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성전 건축.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52,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7~88 참조) (4)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 (5) 복음이 천사들의 성역으로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2, 30~32, 68~70 참조) (6) 초등회 3 교사 교재, 제24과에 나오는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이야기.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을 함께 암송한다. 성신의 은사로 인한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

스스로 깨뜨린 근무 조건, 그리고 그 결과

“절대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하지 말 것!” 25년 전 이명심 자매가 선교사 숙소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제시한 가장 엄격하면서도 유일한 근무 조건이었다. 이 자매의 음식 솜씨에 관한 그녀의 음식을 맛본 선교사 누구나 자연스럽게 엄지 손가락을 세워보일 만큼 뛰어났지만, 교회에 관한 입장에서만큼은 누구나 고개를 저을 만큼 완강했다.

장조카인 구규우 형제의 권유로 선교사 숙소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이 자매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엄격할 수 없었지만,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지켜봐 온 선교사들의 자세가 그녀의 완강한 태도를 무너뜨려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먼 곳까지 왔을까? 낯선 타국 땅, 타향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봉사하면서도 늘 행복에 가득 차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이 자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활의 모범이었다. 어느 선교사도 그녀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지켜 보는 동안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이 귀에 익고 몇몇 찬송가들이 입에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근무 조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980년 8월 23일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스스로 근무 조건을 파기하고 교회 회원이 된 이 자매는 전임 선교사로부터 가장 잘 훈련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다.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인 구교만 형제에게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남편도 호인이 아닐 수 없다. 아내의 가르침을 묵묵히 다 들어준 것이다. 한번은 이 자매가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와 미처 자신도 그 원리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준 적이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인 구 형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부창부수(婦唱夫隨)가 따로 없다. 구교만 형제는 1981년 8월 29일에 침례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주일학교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된 순서로 처서 선배가 된 아내와 후배가 된 남편은 머리를 맞대고 복음을 공부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의 손길을 율타리 밖으로 내밀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조카인 하금희 자매의 가족을 방문하면서 교회의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다. 하금희 자매는 남편 박일충 형제 및 아들 박진형 형제와 함께 선교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한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만남은 곧 하금희 자매의 조카인 정범호 형제 및 쌍둥이 자매 난희, 국희 자매에게로 연결되었다. 여섯 명이 동시에 가족 토론을 시작한 끝에 1992년 9월 13일 이 여섯 명의 침례식이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했던 대가족은 선교사와의 토론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고 회고한다.

그 후 5년이 지난 후 이명심 자매는 언니인 이춘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또 5년이 흐른 뒤에는 조카인 하금례 자매에게도 복음이 전달 되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다.

이명심 자매인들 25년 전 자신이 제시한 ‘근무 조건’을 파기하고 교회 회원이 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상상인들 했을까? 또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개종 시키겠다고 포부 가득한 계획이라도 세웠을까? 하루하루 교회의 가르침 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한 그 정성이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모범이 되어 거대한 강물처럼 가족들의 영혼을 적신 것이 아닐까? 이명심 자매와 가족들은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에 진실로 행복하다는 것을.

* 이명심 자매 가족, 하금희 자매 가족과 이춘순 자매는 온천와드에, 하금례 자매 가족은 김해 지부에 나가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 매우 각별하다. 그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 한국에서 왔다고 인사 드리면 그는 거침없이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넨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뵈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릴 일인데 그의 각별한 한국 사랑 앞에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별로 없다. 만 95세가 넘은 그분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 헌남 50주년 행사들을 감리하기 위해서이다. 언제나 한국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해주었던 그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이번 8월호에서는 그 동안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힝클리 회장의 한국 방문기를 심는다. 많은 독자들이 유쾌한 추억을 떠올려보기를 기대한다.

◆ 힝클리 회장의 약력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거의 47년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다. 그는 1958년 부터 3년 이상을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봉사했다. 또한 1961년 10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아 20년 동안 사도로서 봉사했다. 그는 1981년 7월,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의 보좌를 시작으로 하여 14년 동안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킴볼 회장 재임시에는 제2보좌로 봉사했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재임시에는 제1보좌로 봉사했다. 헌터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1910년 6월 23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한 힝클리 회장은 유타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5년

에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후에 교회 공보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맡았다. 그 후 20여 년동안, 그는 교회 공보 업무를 관리했으며, 교회에 최초로 전자 미디어 매체를 도입했다. 그 후 7년 동안 본부 선교사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일했으며, 스테이크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전역을 수없이 여행했으며, 교회의 세분의 제일정원회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 역사상 어떤 지도자가 헌납한 것보다 많은, 22개의 성전을 헌납했다. 부인인 마조리와의 사이에 다섯 자녀가 있다.

한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1960년대

십이사도 보조와 십이사도로 봉사하셨던 1960년대에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시며 한국을 거의 3개월에 한번꼴로 자



1962년 청운동 한국 선교부 방문

회장님과 한국 성도와의 만남

주 방문 하였다. 그 중 중요한 방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0년 겨울 한국 처음 방문
- 1961년 5월 한국 교회를 돌아보러 방한 중 5·16 혁명 목격
- 1964년 4월 제일회장단 제1보좌 휴 비 브라운 회장과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한국 방문
- 1966년 9월 10일 서울 용두동 소재의 예배당을 헌납. 이로써 아시아 대륙 제1호의 교회 정규 예배당이 세워짐
- 1967년 4월 27일 제일회장단 제1보좌 휴 비 브라운 회장이 고든 비 힝클리 장로를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 현 청운동의 국기 게양대를 헌납하였고 이 모임에 독립 운동가 이갑성 선생 초대

1968년 4월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 재방문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게 된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 이후 생략)이 힝클리 자매와 함께 1968년 4월 27일 JAL 비행기편으로 방한했다. 극동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내한한 힝클리 회장 부처는 선교부 회장단과 지방부 역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트랩을 밟았다. 힝클리 회장은 트랩에서부터 손을 흔들며 오랜 여행에도 끄떡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오후 7시 선교부 노변의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우리 교회의 교리를 하나 하

나 풀이해 주면서 후기에 회복된 교회의 교리를 제시해 주었다.

1975년 8월 14일 한국 대회를 위해 김볼 회장과 함께 방한

1975년 8월 15일~17일 사흘간 한국 대회가 개최되었다.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은 8월 16일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간증을 조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저녁 부모의 밤 모임에서는 “네개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다. 주님의 자녀로 위대한 가정을 이

룩할 때 튼튼한 기초가 되는 4개의 모퉁이 돌에 대하여 말씀 했다. 첫번째 모퉁이 돌은 상호 존중이고, 두 번째 모퉁이 돌은 유순한 대답이며, 세 번째 모퉁이 돌은 주님께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모퉁이 돌은 가족 기도라고 설명했다. 힝클리 회장은 네개의 모퉁이 돌을 통하여 한국의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했다.

1979년 9월 6일 부산 스테이크 조직

1979년 9월 6일 7시 부산 지부에서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이 감리하는 가운데 부산 스테이크가 탄생되었다. 이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과 성약에 따라 살 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약 8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호남 선교부 회장은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킨 주인공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1975년 8월 한국 대회 기자 회견

1979년 9월 9일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이 감리하는 가운데 9월 9일 개최되었다. 7와드에서 1,75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서 스테이크는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 이날 대회에서 헝클리 회장은 성도들이 좀더 노력하면 또 하나의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980년 10월 한국 대회를 위해 김볼 회장과 함께 한국 방문

1980년 10월 25~26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를 서울 선교부(청운동 7번지)에서 가졌다. 80년 한국 대회는 75년 한국 대회를 개최한 이래 5년 만에 갖는 뜻깊은 모임이었으며, 특히 연로한 스페인 더블류 김볼 회장과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은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당시 한인상 지역 대표와 그 밖의 많은 역원 및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빼놓지 않았다. 시내 각 일간 신문과 주간 종교, 코리아 헤럴드, MBC-TV, KBS 등 매스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에 관해 보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85년 12월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방문

1985년 12월에 10억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첫 번째 성전이 헌납되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 새시대의 장이 열렸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헌납식의 행사를 감리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과의 오랜 친분을 되새기며 추억에 잠겼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침략과 전쟁으로 시련을 겪어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친절하고 민족이라고 말했다.



1985년 12월 14일 성전 정초식

다. 그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도 한국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5년 전입니다.”라고 그는 헌납 모임에서 말했다. “그때는 신 살이었는데 지금은 일흔다섯 살입니다. 나는 한국에 오면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험도 많습니다. 이곳에는 물자도 없었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가난했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에 방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날리고 있었으며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땅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 나는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판자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980년 10월 21일에 열린 서울 지역 대회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인용했다.

“스페인 더블류 김볼 회장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바친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잘 먹을 것이며, 보다 잘 입을 것이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게 될 것이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볼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빈곤이 산재해 있으나 많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번의 헌납 모임에서 헝클리 회장은 몇몇 충실한 초기 성도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중에는 뉴욕 코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한국에서 신앙의 기초가 된 김호직 형제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었다.

1986년 부산 지역 대회 감리를 위해 방한

부산, 부산 서, 대구 스테이크 성도들을 위한 부산 지역 대회가 1986년 10월 18, 19일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총 관리 역원들은 부산에서의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특별히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25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합창단의 찬송을 들은 후 한국인의 합창은 세상의 다른 합창단이 따

를 수 없는 세계 제일의 합창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또한 지난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강조한 물몬경 읽기와 연구는 우리 후기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를 대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도를 위한 준비,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성전 사업을 위한 준비와 생업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힝클리 회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국과 이곳의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쁨을 몽클하게 했으며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1987년 9월 서울 지역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한국 방문

1987년 9월 12일과 13일 서울 지역 대회가 있었다. 이 지역대회에는 힝클리 회장 내외분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아시아 지역 회장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내외가 함께 동반하였다. 12일의 신권 지도자 모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스테이크의 신당 와드 건물에서 있었고, 13일의 일반 총회는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

한 힐튼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 감리한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는 약 540여 명의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일요일 총회에는 5,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1966년에 한국에 32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600명이 있으며 그 당시에는 전국에 7개뿐이던 지부가 오늘날 15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로 성장했다고 말씀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없던 스테이크가 오늘날 14개가 있으며 당시에는 없던 성전이 있으니 기적이라고 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복음이 개인과 국가를 축복 할 수 있다고 하며, 성전에 자주 갈 것을 권고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한국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여러분은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권의 권세로 축복하여야 하며, 한국 백성을 축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시지는 않으시나 그 축복을 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이며 권리입니다. 또한 모임에서 경전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고, 경전의 말씀으

로 축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 주님이 계시나 사탄도 있음을 기억하여 죄로부터 깨끗하라고 말씀했다. 주변의 유혹을 이기고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일요일 총회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말씀을 하는 도중에 지역 합창단 지휘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불러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합창단의 찬송에 눈물을 흘렸다. 힝클리 회장은 고 김호직 박사에 대해 말씀하며 그가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했다. 이제 기초는 놓여졌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다.

“비록 오늘의 고난이 클지라도 앞으로 올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여러분의 생활에 반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성취한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경제적 기적이 있었으나 또 다른 기적이 있으니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백성이 영접하는 것이며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이니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에 또 다른 장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자”고 말씀했다. 끝으로 힝클리 회장은 “제가 주님의 손의 상처를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1991년 4월 광주 지역 대회와 서울, 서울 지역 대회 참석차 방한

광주 지역 대회

1991년 4월 20일~21일 양일간 힝클리 회장의 감리 아래 광주 실내 체육관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지역 대회를 갖게 된 광주 지역 성도들은 약 6개월 전부터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신권회를 가졌으며 일요일 총회는 광주 실내 체육관에서 가졌다.



1987년 9월 서울 지역 대회



1995년 9월 온누리 합창단 미국 방문

20일 오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 부부,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멀린 알 리버트 장로 부부가 도착하여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신권회를 가졌다. 힝클리 회장은 선교 사업과 교회의 사명 및 벤슨 회장의 근황에 대해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일요 총회가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의 초창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으며 성도들은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지역 대회

1991년 4월 28일 오전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서울 지역 대회를 가졌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마지막 연사로 말씀을 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소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등록하여 참석하고 성인들은 종교 교육원 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유익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 하였다. 후기 성도로서 행하기 쉽고

단순한 지침 5가지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기도하십시오.
2.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3. 매일 친절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4.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5. 자신의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십시오.

위의 다섯 가지 제안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지침이면서 온전히 행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간증했다.

서울 서 지역 대회

서울 서 지역 대회 역시 1991년 4월 28일 오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감리와 멀린 알리버트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서울 서 지역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 처음 온 후의 지난 세월들을 말씀하면서 한국 전쟁, 4·19 학생 의거, 5·16 혁명 때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그 당시 소수의 한국 성도들과 같이 한 지역 대회의 일화를 말씀했다. 난방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한국 대회에서 말씀 중 난로의 연통이 떨어져 말씀이 지연되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 뒤 발전한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한국에서도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성

도가 되어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처럼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하고 충실할 것과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것을 권고했다.

1995년 9월 온누리 합창단 미주 순회

공연시 합창단 접견

온누리 합창단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의 미국 순회 공연을 하였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진 이 공연에는 단원과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82명의 일행이 참여했으며,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솔트레이크, 시애틀 등 4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였다. 주로 경인지역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온누리 합창단이 창단된 1990년부터 미국 공연을 목표로 세우고 준비하여 온 결과이다. 힝클리 회장은 솔트레이크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9월 8일 회장 사무실로 합창단원 모두를 초청했다. 한인상 형제, 고원용 장로, 후원회장인 송평중 형제와 모든 단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및 많은 총관리 역원이 배석하였다. 오전 11시쯤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은 합창단이 우리 가곡 '보리밭'을 부르는 가운데 힝클리 회장을 맞았다. 이어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자 힝클리 회장은 훌륭한 노래를 선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평화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씀했다. 말씀을 마친 후, 회장은 2곡을 더 불러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합창단이 '경복궁 타령'과 '아리랑'을 부르자 아주 훌륭하다는 칭찬과 더불어 한국을 더 요청했다. 합창단이 '주의 기도'를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자리를 함께 한 총관리 역원과 교회 직원들도 함께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회장은 계속해서 ‘애국가’와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노래가 끝난 후 회장은 “이번 여행에 들인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감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였다. 추석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우리의 풍습대로 큰절을 올리자, 핑클리 회장도 맞절을 하여 모두들 당황하고 놀랐지만, 그가 얼마나 한국과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접견이 끝난 후, 핑클리 회장이나 단원들 모두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곳을 떠나왔다.

1996년 5월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한국을 방문

교회의 제15대 제일정원회 회장으로, 한국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든 비 핑클리 회장 내외가 김 불 회장 이후 교회 회장으로서 16년 만인 5월 21일부터 23일 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킨 장로 내외 및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내외를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했

다.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핑클리 회장은 5월 21일 부산과,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특별 한국 대회를 감리했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5월 21일, 낮 12시 30분 김해 공항에 도착한 핑클리 회장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UN 묘지를 방문하여 6.25동란 중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세계 자유 우방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UN 묘지 참배 후, 해운대 하이얏트 호텔에 여정을 푼 핑클리 회장 일행은 이어 오후 4시 30분 부산 스테이크 광안와드에서 열린 부산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감리하였다. 선교사 대회 후, 부산 지역의 초청된 전·현임 신권 지도자들 부부와 함께 만찬을 나누었으며, 7시 20분 쯤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에서 모인 2,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회장(부산KBS홀)에 도착했다.

핑클리 회장이 감리하고 부산 스테이크의 양기욱 스테이크 회장이 사회를 본 이 대회에서는 핑클리 회장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걸어가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거주할 곳이 없지 않으며 참으로 행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위대한 나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이튿날 핑클리 회장은 서울에 도착하여 기자 회견을 위해 플라자 호텔로 향했다.

12시 10분부터 시작된 기자 회견에

는 조선 일보를 비롯한 국내 10개 주요 일간지와 연합 통신, 코리아 헤럴드의 문화부 종교 담당 기자들이 참석하여 오찬 및 기자 회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찬 중에는 온누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후기성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기자 회견 후 숙소인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 여장을 푼 핑클리 회장 일행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4시 30분 영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서울 선교부와 서울서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주관하였다.

이 모임에서 이어 6시부터는 서울과 경인 지역의 초청된 전·현임 신권 지도자 부부와 만찬을 나누었는데, 핑클리 회장은 참석한 신권 지도자 부부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서울 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에는 오후 5시부터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모임 시작 30분전인 7시에 이미 대회장이 주님의 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모임 시작 10분 전, 핑클리 회장 일행이 참석한 5,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입장하였다.

이 대회에서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한 핑클리 회장은 “이 땅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녀야 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와 이 백성에 대한 큰 사랑을 전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전에 서울 성전을 방문한 후, 오후 1시경 곧바로 다음 여행지인 대만을 향해 출발했다. ■



1996년 5월 특별 한국 대회